

# 제 3 장

2011마약류범죄백서

##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PROSECUTION  
SERVICE

## 제1절 마약류의 개요

### 1.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 기 간 : 2011. 1. 1. ~ 2011. 12. 31.
- 자 료 : 검찰통계시스템 마약관련 사건통계
  - ※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2. 범죄유형

- 마약류와 그 원료의 밀조, 밀매 및 밀수행위
- 마약류의 소지 및 불법사용 행위
- 마약류 취급자의 관계법령 위반행위

### 3. 기타 특이사항

- 양귀비 개화기 특별단속 실시
  - 2011. 4. 중순 ~ 6. 하순
- 대마 수확기 특별단속 실시
  - 2011. 6. 중순 ~ 7. 중순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시행
  - 2011. 4. 1. ~ 6. 30.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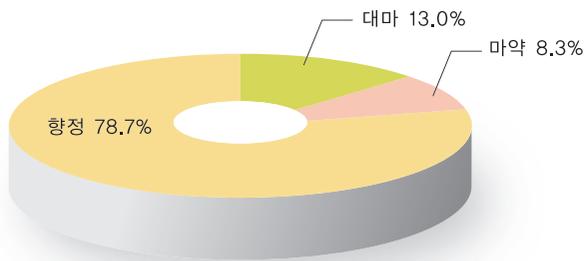
## 제2절 2011년도 마약류 사범 검거내역

## 1. 마약류별 내역

[표 3-1] 마약류별 현황

마약류	구분	건수	인원(명)		
			합계(점유율)	구속	불구속
합계		7,365	9,174 (100%)	2,085	7,089
마약		682	759 (8.3%)	17	742
향정		5,840	7,226 (78.7%)	1,898	5,328
대마		843	1,189 (13.0%)	170	1,019

- 201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은 9,174명으로 전년도 9,732명 대비 5.7% 감소
- 마약사범은 759명으로 전년도 1,124명 대비 32.5% 감소
- 향정사범은 7,226명으로 전년도 6,771명 대비 6.7% 증가
- 대마사범은 1,189명으로 전년도 1,837명 대비 35.3% 감소



[그림 3-1] 전체 마약류 사범 마약류별 구성비

## 제2절 2011년도 마약류 사범 검거내역

## 2. 유형별 내역

[표 3-2] 마약류 유형별 현황

(단위: 명)

마약류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2 (0.0)	273 (3.0)	1,904 (20.8)	561 (6.1)	5,365 (58.5)	455 (5.0)	614 (6.7)	9,174 (100)
마약	0	13	24	495	117	27	83	759
향정	2	234	1,780	0	4,399	327	484	7,226
대마	0	26	100	66	849	101	47	1,189

- 사용사범은 5,365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58.5%(전년도 61.6%)를 차지
- 밀조·밀수·밀매사범 등 공급사범은 2,179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23.8%(전년도 20.8%)를 차지
- 전체 마약류 사범은 전년대비 5.7% 감소하고, 공급사범은 7.4% 증가



[그림 3-2] 전체 마약류 사범 유형별 구성비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3. 청별 내역

[표 3-3] 청별 단속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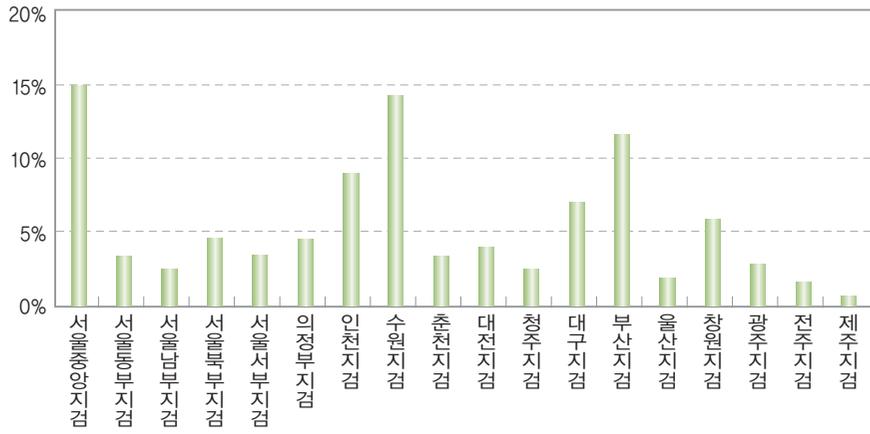
(단위: 명)

청별	구분	2010		2011		증감률(%)
		사범수	구성비	사범수	구성비	
합	계	9,732	100.0	9,174	100.0	-5.7
서울중앙지검		1,318	13.5	1,379	15.0	4.6
서울동부지검		249	2.6	315	3.4	26.5
서울남부지검		251	2.6	220	2.4	-12.4
서울북부지검		304	3.1	432	4.7	42.1
서울서부지검		449	4.6	356	3.9	-20.7
의정부지검		507	5.2	446	4.9	-12.0
인천지검		960	9.9	831	9.1	-13.4
수원지검		1,810	18.6	1,340	14.6	-26.0
춘천지검		252	2.6	329	3.6	30.6
대전지검		658	6.8	384	4.2	-41.6
청주지검		198	2.0	238	2.6	20.2
대구지검		660	6.8	637	6.9	-3.5
부산지검		987	10.1	1,053	11.5	6.7
울산지검		163	1.7	191	2.1	17.2
창원지검		611	6.3	516	5.6	-15.5
광주지검		193	2.0	289	3.2	49.7
전주지검		123	1.3	153	1.7	24.4
제주지검		39	0.4	65	0.7	66.7

\*지검 실적에 관내 지정분 및 경찰·세관 송치분 포함

- 청별 단속점유율은 재경지검(서울중앙, 동, 서, 남, 북부지검포함) 29.4%, 수원지검 14.6%, 부산지검 11.5%, 인천지검 9.1%, 대구지검 6.9% 순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58.0%(전년도 60.1%)가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

제2절 2011년도 마약류 사범 검거내역



[그림 3-3] 청별 마약류 사범 단속 구성비

제 3 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4. 마약류 · 월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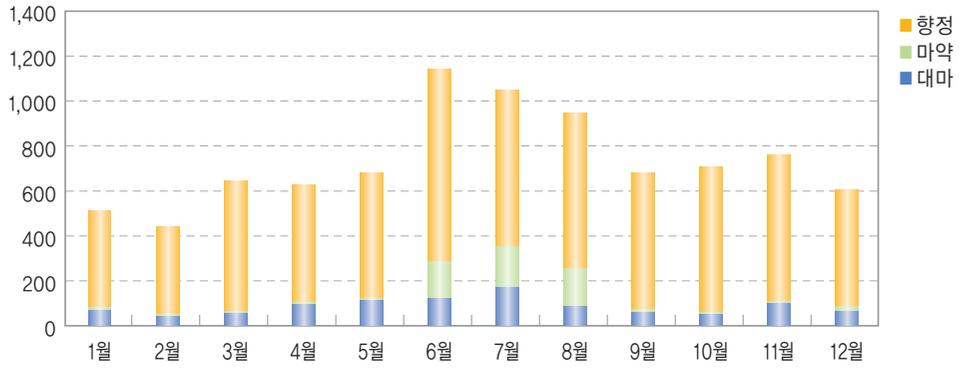
[표 3-4] 마약류 월별 단속 현황

(단위: 명)

월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합 계		759	7,226	1,189	9,174	100
1월		19	460	74	553	6.0
2월		9	420	52	481	5.2
3월		12	592	68	672	7.3
4월		15	537	108	660	7.2
5월		16	561	117	694	7.6
6월		208	830	130	1,168	12.7
7월		203	672	211	1,086	11.8
8월		206	670	101	977	10.6
9월		17	635	68	720	7.8
10월		16	656	59	731	8.0
11월		13	656	124	793	8.6
12월		25	537	77	639	7.0

- 월별 단속실적 점유율은 6월(12.7%), 7월(11.8%)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4월 중순경부터 7월 중순경 사이 시행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제2절 2011년도 마약류 사범 검거내역



[그림 3-4] 마약류 사범 월별 단속 추이

제 3 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5. 기관별 단속내역

[표 3-5] 기관별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별	검찰	경찰	기타	합계
전 체	마약류 사범	3,618 (39.4)	5,552 (60.5)	4 (0.0)	9,174 (100)
	공 급 관 련	1,081 (49.6)	1,098 (50.4)	0 (0.0)	2,179 (100)

- 기관별 단속점유율은 검찰 39.4%, 경찰 60.5%, 기타 0.04% 차지
- 검찰은 전년대비 2.8%(전년도 3,721명) 감소하고 경찰은 7.5%(전년도 6,004명) 감소
- 공급관련 마약류 사범에서는 검찰 17.0%(전년도 924명) 증가, 경찰 0.2%(전년도 1,100명) 감소

## 6.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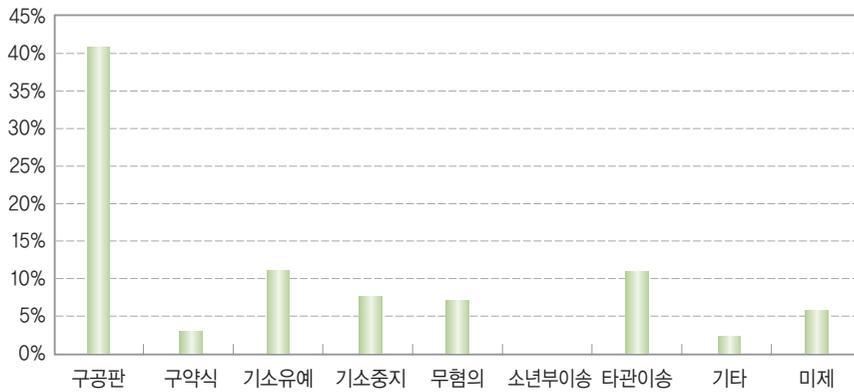
[표 3-6] 마약류별 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처리계 <sup>1)</sup>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이송	타관 이송	기타	
합 계	9,595 (100)	4,071 (42.4)	403 (4.2)	1,233 (12.9)	870 (9.1)	868 (9.0)	0 (0.0)	1,228 (12.8)	297 (3.1)	625 (6.5)
마 약	775 (100)	28 (3.6)	99 (12.8)	534 (68.9)	20 (2.6)	32 (4.1)	0 (0.0)	23 (3.0)	19 (2.5)	20 (2.6)
향 정	7,532 (100)	3,517 (46.7)	198 (2.6)	531 (7.0)	757 (10.1)	716 (9.5)	0 (0.0)	1,063 (14.1)	239 (3.2)	511 (6.8)
대 마	1,288 (100)	526 (40.8)	106 (8.2)	168 (13.0)	93 (7.2)	120 (9.3)	0 (0.0)	142 (11.0)	39 (3.0)	94 (7.3)

1) 처리계는 구수를 포함한 수치임

## 제2절 2011년도 마약류 사범 검거내역



[그림 3-5] 마약류 사범 처리내역

- 전체 마약류 사범의 기소유예율은 12.9%(일반형사사범 15.8%)로 전년대비 7.4% 감소하고, 구약식률은 4.2%(일반형사사범 32.4%)로 전년대비 0.4%, 구공판율은 42.4%(일반형사사범 8.0%)로 전년대비 4.6% 각 증가
-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향정사범 46.7%(전년도 43.9%), 대마사범 40.8%(전년도 33.9%), 마약사범 3.6%(전년도 5.1%) 순으로 나타남
- 마약류별 구약식률은 마약사범 12.8%(전년도 9.9%), 대마사범 8.2%(전년도 6.1%), 향정사범 2.6%(전년도 2.2%) 순으로 나타남
- 마약류별 기소유예율은 마약사범 68.9%(전년도 61.9%), 대마사범 13.0%(전년도 30.3%), 향정사범 7.0%(전년도 11.0%) 순으로 나타남

## 7. 주요 마약류 압수물 내역

[표 3-7] 주요 마약류 압수물 현황

마약류		구분	2010	2011	증감률(%)
합 계			56,998	109,806	92.6
마약	헤로인(g)		81	0	-100.0
	생아편(g)		50	0	-100.0
	코카인(g)		0	2,153	
향정	메스암페타민(g)		11,857	23,466	97.9
	MDMA(정) <sup>2)</sup>		486	562	15.6
	LSD(정)				
	YABA(정)		5	5	0.0
대마	대마초(g)		44,483	83,559	87.8
	해쉬쉬(g)		38	60	60.8

- 2011년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은 총 109.8kg으로 전년도 57.0kg 대비 92.6% 증가
- 메스암페타민은 23.5kg으로 전년 대비 97.9% 증가, 해쉬쉬는 60g으로 전년도 38g 대비 60.8% 증가, 대마초는 83.6kg으로 전년도 44.5kg 대비 87.8% 증가, 신종 정제형 마약류인 MDMA는 562정으로 15.6% 증가(전년도 486정), YABA는 5정(전년도 5정)으로 증감 없었고, 생아편은 압수되지 않았으며, 코카인은 2,153g 압수됨
-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 기타 마약류인 프로포폴, JWH-018 및 유사체, 로라제팜, 펜디메트라진, 졸피뎀, 벤질피페라진, 펜터민, 케타민, 페노바르비탈, 암페타민, 크라툼, 싸이로씨빈, 살비아 디비노럼, 마진돌, 바르비탈 등 다양한 마약류가 압수되어 점차 오남용 마약류가 다양화 되고 있음

2) 정제형 마약류는 1정당 1g으로 환산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1. 마약류 사범 추세

[표 3-8] 연도별 마약류 사범 추세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10,649 (38.1)	9,898 (-7.1)	11,875 (20.0)	9,732 (-18.0)	9,174 (-5.7)
마 약	958 (10.2)	1,396 (45.7)	2,198 (57.4)	1,124 (-48.9)	759 (-32.5)
향 정	8,521 (41.9)	7,457 (-12.5)	7,965 (6.8)	6,771 (-15.0)	7,226 (6.7)
대 마	1,170 (40.1)	1,045 (-10.7)	1,712 (63.8)	1,837 (7.3)	1,189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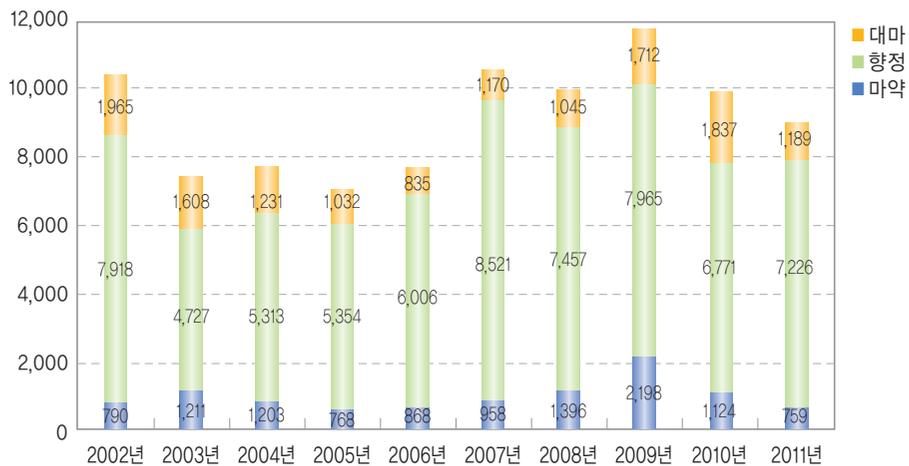
※ ( )는 증감률

- 199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던 전체 마약류 사범이 1999년 처음으로 10,000명 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하였으나, 2002년도에 실시된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파 224명(구속 162명)이 단속되었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부터는 다시 10,000명 선으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마약류 사범의 분포비율은 1995년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1년 78.8%, 2002년 74.2%, 2003년 62.7%, 2004년 68.6%, 2005년 74.9%, 2006년 77.9%, 2007년 80.0%, 2008년 75.3%, 2009년 67.1%, 2010년 69.6%, 2011년 78.7%를 차지함으로써 향정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 사범별 추세를 살펴보면,

- 대마사범은 2006년도까지 감소하다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증가했으나 2011년도에 감소하였고, 마약사범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2010년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11년도 759명임
- 한편, 향정사범은 1995년도 이후 연평균 30% 이상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도 이후에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고, 2008년도부터는 7,000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음



[그림 3-6] 마약류 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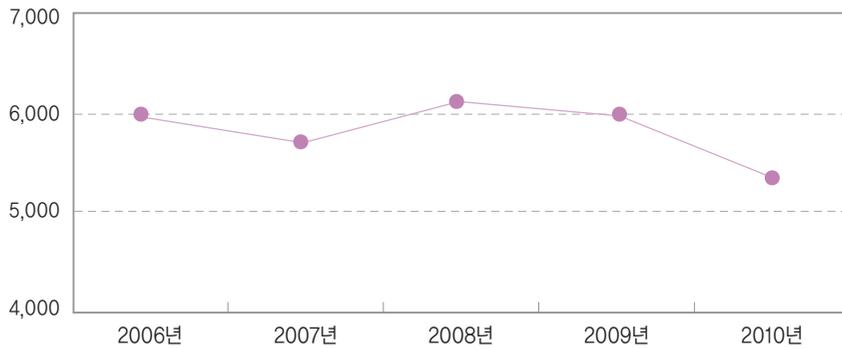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표 3-9] 행위유형별 분석

(단위: 명)

구분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 계	2 (0.0)	273 (3.0)	1,904 (20.8)	561 (6.1)	5,365 (58.5)	455 (5.0)	614 (6.7)	9,174 (100)
마 약	0	13	24	495	117	27	83	759
향 정	2	234	1,780	0	4,399	327	484	7,226
대 마	0	26	100	66	849	101	47	1,189

- 전체 마약류 사범을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사범이 58.5%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밀매(20.8%), 밀경(6.1%), 소지(5.0%)사범 순이며, 이 중 밀수, 밀매사범은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하였고, 사용사범은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대마사범과 향정사범은 사용사범이 각 71.4%, 60.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65.2%로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임



[그림 3-7] 마약류 사용사범 추세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 마약류별 압수 현황

[표 3-10] 마약류별 압수 현황

구분 마약류	품명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마약	양귀비	주	37,275	35,488	113,422	38,554	37,443
	생아편	g	137	195	166	50	0
	헤로인	g	0	0	1,914	81	0
	코카인	g	79	8,869	298	0	2,153
향정	메스암페타민	g	23,739	25,572	15,189	11,888	23,466
	MDMA	정	18,323	714	894	486	562
	야바(YABA)	정	196	151	1	5	5
	엘에스디(LSD)	정	0	0	0	0	0
	기타 향정약품 <sup>3)</sup>	정 (g)	56,714	13,450	213,364	12,842	10,203
대마	대마	주	4,251	3,385	12,690	3,244	70,916
	대마초	g	22,202	92,692	122,539	44,484	83,559
	대마종자	g	10,684	61,196	218,156	37,048	28,229
	해쉬쉬	g	761	2,021	517	38	60
기타	마약류 제조기구	점	5	0	0	13	0
	마약류 제조약품	종	2	0	0	16	0

3) 로라제팜, 펜디메트라진, 졸피뎀, 벤질피페라진, 펜터민, 케타민, 페노바르비탈, 암페타민, 크라툼, JWH-018 및 유사체, 싸이로씨빈, 살비아 디비노림, 마진돌, 바르비탈, 프로포폴 등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3. 마약류 및 원료물질<sup>4)</sup> 압수 현황

[표 3-11] 메스암페타민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단위: g)

연도별	구분	메스암페타민		염산(슈도)에페드린
		완제품	반제품	
2007		23,739	0	17,523
2008		25,572	0	7,982
2009		15,189	0	0
2010		11,888	0	0
2011		23,466	0	0

[표 3-12] 헤로인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연도별	구분	건수	헤로인 (단위:g)	건수	무수초산 (단위:ton)
2008	0	0	0	1	12
2009	7	1,914.4	2	13.8	
2010	3	81	1	0.42 <sup>5)</sup>	
2011	0	0	0	0	

- 4)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니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것으로 마약류관리법령에 정한 30종(1군 23종: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페닐-2-프로판, 슈도에페드린, 엔-아세틸안스라닉산, 이소사프롤,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판, 피페로닐, 사프롤, 놀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감마부티로락톤, 1,4-부탄디올,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초산페닐, 벤질시아나이드, 벤즈알데히드, 메칠아민, 에칠아민, 2군 7종: 안스라닐릭산, 에칠에틸, 피페리딘, 염산(염류제외), 메칠에칠케톤, 황산(염류제외), 툴루엔)의 물질과 그 염류
- 5) 미국 마약수사청(DEA)과 공조하여 U.A.E Jabel Ali 항에서 압수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3-13] 메스암페타민 제조사건 현황

(단위 : g)

연도별	구분	건수	제조량	
			완제품	반제품
2007		1	50	0
2008		0	0	0
2009		0	0	0
2010		2	2,003	0
2011		0	0	0

- 메스암페타민 제조사범이 2000년도 2건 5명, 2001년도 1건 4명이 적발된 이후 2002년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다가 2003년도 들어 밀조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제조사건 1건 2명 있었고, 2004년과 2005년 역시 적발된 사례가 없다가 2006년도 1건 4명, 2007년도 감기약과 살 빼는 약으로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음
- 2006년도 1건 4명, 2007년도 1건 2명은 모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메스암페타민의 제조 원료인 에페드린이 포함된 감기약과 살 빼는 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후 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내 이를 이용하여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여 적발된 것임
- 2010년도는 화학박사 출신이 국내 유통이 가능한 벤질시아나이드를 이용하여 신공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한 1건 1명, 외국인 선원이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이용하여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한 1건 1명, 화학과 교수가 원료물질 소이움 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를 제조한 1건 1명이 적발됨
- 1990년대 초반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밀조사범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메스암페타민 제조기술자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도피하여 이후 국내 밀조사례는 거의 적발되지 않아 국내에서 제조 사범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2006년도 이후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서 원료물질을 쉽게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사실과 최근 국내 외 인터넷 상에 마약류 제조법이 불법으로 유포됨에 따라 원료물질과 원료물질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음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참고로 2011년도에 주한미군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JWH-018 및 그 유사체를 제조, 판매한 사건이 적발되어 1명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1명은 한미행정협정 사건으로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에 의해 '공소권없음' 처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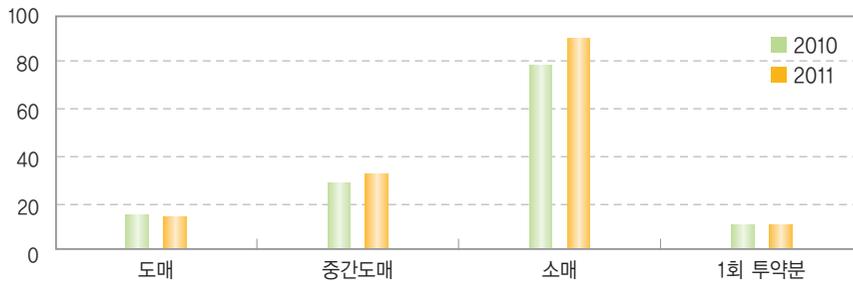
### 4. 메스암페타민 밀거래가격

[표 3-14] 메스암페타민 밀거래가격

(단위: 만원)

지역별	구분	1g당 가격						1회 투약분 (0.03g)	
		도매		중간도매		소매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서울	13	25	34	50	79	80	10	10	
인천	30	15	35	40	100	100	10	10	
대구	20	20	40	40	30	100	10	10	
부산	10	10	25	25	100	100	10	10	
광주	-	-	40	40	100	100	10	10	
5대도시평균	18	18	35	39	82	96	10	10	

- 메스암페타민 1g당 5대 도시 평균 도매가격은 18만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중간도매가격은 39만원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소매가격은 96만원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으나, 1회 투약분 가격은 1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8] 거래유형별 가격 추이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5.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표 3-15]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마약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sup>6)</sup>
코 카 인(g)		1	3 (3)	5	8,888 (8,885)	2	58 (58)	0	0 (0)	1	2,100 (2,100)
헤 로 인(g)		0	0 (0)	0	0 (0)	5	1,909 (1,897)	2	31 (31)	0	0 (0)
생 아 편(g)		0	0 (0)	0	0 (0)	2	24 (24)	1	2 (2)	0	0 (0)
메스암페타민(g)		80	18,643 (17,113)	68	22,477 (22,404)	55	10,223 (10,205)	73	8,642 (8,201)	50	19,015 (18,416)
MDMA(정)		9	15,460 (15,346)	7	163 (148)	3	312 (312)	5	542 (42)	1	10 (1)
엘 에 스 디(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야 바(정)		0	0 (0)	1	15 (15)	1	160 (0)	1	5 (5)	0	0 (0)
대 마 초(g)		39	8,952 (8,942)	27	14,578 (14,571)	19	21,792 (21,792)	22	276 (276)	12	619 (618)
해 쉬 쉬(g)		10	707 (707)	8	882 (618)	5	53 (53)	3	3,404 (4)	2	26 (26)

※ ( )는 압수량

- 2011년도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21.8kg(66건)으로 2010년도 12.9kg(107건) 대비 69.0% 증가
- 외국산 마약류는 필로폰, 대마초, 해쉬쉬, 코카인이 주류를 이루며, 2011년에도 JWH-018 및 유사체, 크라툼, 케타민,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졸피뎀, MDMA, 리저직산아마이드 등 신종 마약으로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음

6) 반입량과 압수량이 동일한 경우는 반입량을 확인할 수 없어 편의상 압수량과 동일하게 한 것임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표 3-16]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단위: g)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09			2010			201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메스암페타민 <sup>7)</sup>	중 국	42	5,891	5,873	54	4,818	4,662	38	5,843	5,254	
	터 키	0	0	0	0	0	0	0	0	0	
	필 리 핀	2	12	12	6	182	130	2	2,082	2,082	
	말레이시아	0	0	0	1	0.4	0.4	0	0	0	
	태 국	4	61	61	0	0	0	0	0	0	
	미 국	2	4	4	1	0.8	0.4	2	18	8	
	홍 콩	0	0	0	0	0	0	0	1	1	
	남아프리카공화국	4	4,175	4,175	0	0	0	2	3,571	3,571	
	대 만	1	79	79	1	998	998	1	0	0	
	멕 시 코	0	0	0	6	409	225	6	0	0	
	베 트 남	0	0	0	2	36	36	2	18	18	
	캐 나 다	0	0	0	1	220	171	1	3,245	3,245	
	아랍에미리트	0	0	0	1	1,978	1,978	0	0	0	
	말 리	0	0	0	0	0	0	2	4,238	4,238	
소 계	55	10,222	10,204	73	8,642	8,201	56	19,016	18,417		
코카인	미 국	1	58	58	0	0	0	0	0	0	
	브 라 질	0	0	0	0	0	0	0	0	0	
	프 랑 스	0	0	0	0	0	0	0	0	0	
	태 국	0	0	0	0	0	0	0	0	0	
	홍 콩	0	0	0	0	0	0	0	0	0	
	파 나 마	0	0	0	0	0	0	1	2,100	2,100	
소 계	1	58	58	0	0	0	1	2,100	2,100		
헤로인	캄 보 디 아	2	1,559	1,559	0	0	0	0	0	0	
	베 트 남	2	16	3	0	0	0	0	0	0	
	인 도	1	335	335	0	0	0	0	0	0	
	키르기스스탄	0	0	0	1	30	30	0	0	0	
	미 국	0	0	0	1	0.9	0.9	0	0	0	
소 계	5	1,910	1,897	2	30.9	30.9	0	0	0		
대마초	일 본	1	11	11	0	0	0	0	0	0	
	미 국	8	218	218	10	199	199	4	379	378	
	캐 나 다	4	8	8	2	9	9	1	98	98	
	남아프리카공화국	2	16,334	16,334	1	2	2	0	0	0	
	네 덜 란 드	1	949	949	3	42	42	0	0	0	
	태 국	1	7	7	0	0	0	0	0	0	
	호 주	0	0	0	0	0	0	0	0	0	

제 3 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7) 2011년도에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총 23.5kg은 거의 외국산으로 추정되나 중간 밀매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국적불명으로 분류되어 외국산 압수량에서 제외

2011 마약류 범죄백서

(단위: g)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09			2010			201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초	나이지리아	1	4,263	4,263	0	0	0	0	0	0
	필리핀	0	0	0	2	10	10	0	0	0
	체코	0	0	0	1	10	10	0	0	0
	영국	1	2	2	0	0	0	3	6	6
	베트남	0	0	0	1	1	1	0	0	0
	뉴질랜드	0	0	0	1	0.3	0.3	1	41	41
	스리랑카	0	0	0	1	2	2	0	0	0
	중국	0	0	0	0	0	0	2	92	92
	스페인	0	0	0	0	0	0	1	2	2
소계	19	21,792	21,792	22	276	276	12	618	617	
크라툼	미국	0	0	0	0	0	0	1	16	16
	영국	1	5	5	0	0	0	0	0	0
	캐나다	0	0	0	2	72	72	0	0	0
	네덜란드	0	0	0	1	10	10	0	0	0
소계	1	5	5	3	82	82	1	16	16	
해쉬쉬	미국	0	0	0	1	4	4	0	0	0
	러시아	0	0	0	0	0	0	0	0	0
	아일랜드	0	0	0	0	0	0	0	0	0
	홍콩	0	0	0	1	3,400	0	0	0	0
	영국	0	0	0	0	0	0	0	0	0
	프랑스	1	6	6	0	0	0	0	0	0
	캐나다	0	0	0	0	0	0	1	27	27
	태국	0	0	0	0	0	0	0	0	0
	이란	1	5	5	0	0	0	0	0	0
	네덜란드	1	13	13	1	0.5	0.5	0	0	0
	스페인	1	5	5	0	0	0	0	0	0
	리비아	1	24	24	0	0	0	0	0	0
베트남	0	0	0	0	0	0	1	0.5	0.5	
소계	5	53	53	3	3,405	4.5	2	27.5	27.5	
MDMA(정)	캐나다	0	0	0	2	507	7	0	0	0
	미국	0	0	0	1	17	17	1	10	1
	태국	0	0	0	0	0	0	0	0	0
	대만	0	0	0	1	17	17	0	0	0
	베트남	2	14	14	1	1	1	0	0	0
중국	1	298	298	0	0	0	0	0	0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단위: g)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09			2010			201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MDMA(정)		일본	0	0	0	0	0	0	0	0	0
		홍콩	0	0	0	0	0	0	0	0	0
		소계	3	312	312	5	542	42	1	10	1
케타민		중국	2	128	126	0	0	0	0	0	0
		미국	0	0	0	0	0	0	0	0	0
		태국	0	0	0	0	0	0	0	0	0
		홍콩	0	0	0	0	0	0	0	0	0
		대만	1	16	16	1	36	36	0	0	0
		캐나다	0	0	0	0	0	0	1	2.8	2.8
		소계	3	144	142	1	36	36	1	2.8	2.8
벤질피페라진(정)		태국	1	20	20	0	0	0	0	0	0
		영국	2	52	52	0	0	0	0	0	0
		소계	3	72	72	0	0	0	0	0	0
JWH-018(정)		영국	1	30	30	1	2	2	1	12	12
		네덜란드	1	27	24	0	0	0	0	0	0
		미국	0	0	0	3	119	119	6	146	137
		중국	0	0	0	1	24	24	0	0	0
		뉴질랜드	0	0	0	4	40	40	4	76	65
		헝가리	0	0	0	0	0	0	2	68	68
		대만	0	0	0	0	0	0	1	65	65
		호주	0	0	0	0	0	0	1	10	10
		일본	0	0	0	0	0	0	1	10	10
		소계	2	57	54	9	185	185	16	387	367
사이로시빈		캐나다	0	0	0	0	0	0	0	0	0
		네덜란드	0	0	0	1	20	20	0	0	0
		소계	0	0	0	1	20	20	0	0	0
야바(정)		태국	1	160	0	0	0	0	0	0	0
		중국	0	0	0	1	5	5	0	0	0
		소계	1	160	0	1	5	5	0	0	0
살비아디비노럼		미국	1	2	2	0	0	0	0	0	0
		네덜란드	0	0	0	1	1	1	0	0	0
		영국	0	0	0	1	27	27	0	0	0
		소계	1	2	2	2	28	28	0	0	0
생아편		이란	2	24	24	0	0	0	0	0	0
		중국	0	0	0	1	2	2	0	0	0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단위: g)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09			2010			2011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생아편	소	계	2	24	24	1	2	2	0	0	0
		미	0	0	0	0	0	0	0	0	0
알프라졸람(정)	인	도	0	0	0	0	0	0	1	120	120
		소	0	0	0	0	0	0	1	120	120
거통편(정)	중	국	1	4,760	4,760	4	10,569	10,569	1	10	10
바르비탈	중	국	0	0	0	1	4	4	1	4	4
암페타민(정)	중	국	0	0	0	2	207	207	2	207	207
대마종자	영	국	2	1	1	3	2.4	2.4	3	2.4	2.4
양귀비씨앗	미	국	2	294	294	0	0	0	0	0	0
TFMPP	미	국	1	2	2	0	0	0	0	0	0
슈도에페드린	중	국	0	0	0	0	0	0	0	0	0
놀라제팜(정)	미	국	1	130	130	0	0	0	0	0	0
졸피뎀(정)	미	국	1	90	90	0	0	0	1	111	104
마진돌(정)	미	국	0	0	0	0	0	0	0	0	0
디아제팜(정)	태	국	0	0	0	0	0	0	1	42	42
러미나(g)	미	국	0	0	0	0	0	0	1	1.5	1.4
리저직산아마이드(g)	미	국	0	0	0	0	0	0	0	0	0
클로나제팜(정)	인	도	0	0	0	0	0	0	1	120	120
메스케치논(g)	형	가 리	0	0	0	0	0	0	1	0.8	0.8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표 3-17] 생아편 밀반입 현황

(단위: g)

연도별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0	0	24	2	0
이 란	0	0	24	0	0
중 국	0	0	0	2	0

[표 3-18] 헤로인 밀반입 현황

(단위: g)

연도별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0	0	1,910 (1,897)	31 (31)	0
중 국	0	0	0	0	0
베 트 남	0	0	16 (3)	0	0
캄 보 디 아	0	0	1,559 (1,559)	0	0
인 도	0	0	335 (335)	0	0
미 국	0	0	0	1 (1)	0
키르기스스탄	0	0	0	30 (30)	0

※ ( )는 압수량

- 2009년도에는 다량 밀반입 사례가 있었으나 2010년도에는 소량의 밀반입만 적발되었고, 2011년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음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3-19] 코카인 밀반입 현황

(단위: g)

연도별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3 (3)	8,888 (8,885)	58 (58)	0	0
브 라 질	0	8,800 (8,800)	0	0	0
룩셈부르크	0	0	0	0	0
호 주	0	0	0	0	0
미 국	3 (3)	0 (0)	58 (58)	0	0
프 랑 스	0	1 (1)	0	0	0
태 국	0	50 (50)	0	0	0
홍 콩	0	37 (34)	0	0	2,100 (2,100)

※ ( )는 압수량

- 2006년도에는 네덜란드 국적(원적: 가봉)의 외국인이 인천공항을 출발, 프랑스를 경유하여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4kg(시가 120억 원 상당)을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되었음
- 2008년도에는 브라질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코카인 8.8kg(시가 258억원 상당)을 밀수하려한 일본인 운반책과 밀수 국제조직원 나이지리아인이 적발되었음
- 2009년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어강사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부터 코카인 58.34g을 국제특급 우편으로 수령하다가 적발되었음
- 2011년도에는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의 컨테이너선에서 성명불상자가 밀반입하려다 유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카인 약 2,100g을 적발하였음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표 3-20] 메스암페타민 밀반입 현황

(단위: g)

연도별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18,643 (17,113)	22,477 (22,404)	10,223 (10,205)	8,642 (8,201)	19,015 (18,416)
중 국	18,576 (17,045)	12,356 (12,283)	5,891 (5,873)	4,818 (4,662)	5,843 (5,254)
홍 콩	0	316 (316)	0	0	1,28 (1,28)
필 리 핀	68 (68)	17 (17)	12 (12)	182 (130)	2,081.5 (2,081.5)
미 국	0	0	4 (4)	0.8 (0.4)	17.8 (8)
대 만	0	0	79 (79)	998 (998)	0
캐 나 다	0	0	0	220 (171)	3,244.8 (3,244.8)
태 국	0	6 (6)	61 (61)	0	0
말레이시아	0	2,986 (2,986)	0	0.4 (0.4)	0
터 키	0	3,656 (3,656)	0	0	0
남아프리카공화국	0	3,140 (3,140)	4,175 (4,175)	0	3,571 (3,571)
멕 시 코	0	0	0	409 (225)	0
베 트 남	0	0	0	36 (36)	17.5 (17.5)
가 나	0	0	0	1,978 (1,978)	0
말 리	0	0	0	0	4,237.6 (4,237.6)

※ ( )는 압수량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011년도 외국산 메스암페타민 밀반입량은 총 19,015g으로 전년대비 120.0% 증가하였고 압수량도 18,416g으로 전년대비 124.6% 증가
- 국내 밀반입된 외국산 마약류 중 중국산 메스암페타민 밀반입량은 5,843g으로 전체 외국산 메스암페타민 밀반입량의 30.7%를 차지하여 여전히 중국이 핵심 수출국가임을 알 수 있고, 이 외에도 말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필리핀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이 밀반입되고 있음
- 최근에는 메스암페타민의 공급루트가 중국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리, 가나 등 아프리카 지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표 3-21] 대마초 밀반입 현황

(단위: g)

연도별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8,952 (8,942)	14,579 (14,572)	21,792 (21,792)	276 (276)	618 (617)
나이지리아	6,450 (6,450)	0	4,263 (4,263)	0	0
미 국	530 (521)	297 (293)	218 (218)	199 (199)	379 (378)
캐 나 다	1,901 (1,901)	361 (360)	8 (8)	9 (9)	98 (98)
러 시 아	0	0	0	0	0
남아프리카공화국	0	13,900 (13,900)	16,334 (16,334)	2 (2)	0
중 국	0	0	0	0	92 (92)
호 주	13 (12)	5 (5)	0	0	0
필 리 핀	0	8 (6)	0	10 (10)	0
태 국	0	2 (2)	7 (7)	0	0
체 코	0	0	0	10 (10)	0
슬로베니아	3 (3)	0	0	0	0
영 국	6 (6)	1 (1)	2 (2)	0	6 (6)
몽 골	30 (30)	0	0	0	0
말레이시아	12 (12)	0	0	0	0
스리랑카	7 (7)	5 (5)	0	2 (2)	0
네덜란드	0	0	949 (949)	42 (42)	0
일 본	0	0	11 (11)	0	0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단위: g)

연도별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베 트 남	0	0	0	1 (1)	0
뉴 질 랜 드	0	0	0	0.3 (0.3)	41 (41)
스 페 인	0	0	0	0.3 (0.3)	2 (2)

※ ( )는 압수량

- 2011년도 전체 대마초 밀반입량은 618g, 압수량은 617g으로 전년대비 각 123.9%, 123.6% 증가
- 200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2007년 나이지리아, 2008년,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량으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대체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적의 학원강사 등 국내 체류 또는 여행 중인 외국인들의 소규모 밀수 사례가 많았음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표 3-22] 신종 마약류 밀반입 현황

(단위: 정)

구분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야바	태 국	0	15 (15)	160 (0)	0	
	중 국	0	0	0	5 (5)	
MDMA	캐 나 다	482 (368)	49 (42)	0	507 (7)	
	미 국	169 (169)	10 (10)	0	17 (17)	
	독 일	14,564 (14,564)	0	0	0	
	태 국	0	72 (72)	0	0	
	베 트 남	0	0	14 (14)	1 (1)	
	중 국	245 (245)	0	298 (298)	0	
	호 주	0	0	0	0	
	일 본	0	10 (9)	0	0	
	홍 콩	0	22 (15)	0	0	
	대 만	0	0	0	17 (17)	
케타민(g)	중 국	83 (83)	0	128 (126)	0	
	미 국	0	1 (1)	0	0	
	태 국	0	48 (48)	0	0	
	홍 콩	0	37 (34)	0	0	
	대 만	0	0	16 (16)	36 (36)	
	캐 나 다	0	0	0	0	2.8 (2.8)
벤질피페라진	영 국	0	74 (74)	74 (74)	0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단위: 정)

구분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벤질피페라진	태 국		0	0	20 (20)	0	0
	미 국		0	117 (117)	0	0	16 (16)
크라툼(g)	영 국		0	0	5 (5)	0	0
	캐 나 다		0	0	0	72 (72)	0
	네덜란드		0	0	0	10 (10)	0
	나이지리아		0	0	0	0	0
암페타민	미 국		0	0	0	207 (207)	0
	미 국		530 (529)	0	0	0	0
클로나제팜	인 도		0	0	0	0	120 (120)
	미 국		17 (17)	0	90 (90)	0	111 (104)
사이로시빈(g)	캐 나 다		0	15 (15)	0	0	0
	네덜란드		0	0	0	20 (20)	0
바르비탈(g)	중 국		0	0	0	4 (4)	0
알프라졸람	미 국		0	4 (4)	0	0	0
	인 도		0	0	0	0	120 (120)
JWH-018(g)	영 국		0	0	30 (30)	2 (2)	12 (12)
	네덜란드		0	0	27 (24)	0	0
	미 국		0	0	0	119 (119)	146 (137)
	중 국		0	0	0	24 (24)	0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단위: 정)

구분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JWH-018(g)	뉴질랜드	0	0	0	40 (40)	76 (65)
	헝가리	0	0	0	0	67 (67)
	대만	0	0	0	0	65 (65)
	호주	0	0	0	0	10 (10)
	일본	0	0	0	0	9 (9)
TFMPP(g)	미국	0	0	2 (2)	0	0
마진돌	중국	0	3,907 (3,907)	0	0	0
살비아디비노람(g)	미국	0	0	2 (2)	0	0
	네덜란드	0	0	0	1 (1)	0
	영국	0	0	2 (2)	27 (27)	0
놀라제팜(정)	미국	0	0	130 (130)	0	0
디아제팜(정)	태국	0	0	0	0	42 (42)
리저직산아마이드(g)	미국	0	0	0	0	113 (113)
메스케치논(g)	헝가리	0	0	0	0	0.8 (0.8)
합계		16,090 (15,975)	4,381 (4,363)	996 (830)	1,109 (609)	921 (885)

※ ( )는 압수량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011년도 신종 마약류 밀반입량은 총 921정(g)으로 전년대비 17.0% 감소하였음
- JWH-018, MDMA는 해외 유학생 등 다양한 직업의 국내인은 물론 외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학원강사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밀반입하고 있음
- 최근 밀반입 되는 마약류는 필로폰뿐만 아니라 신종 마약인 JWH-018<sup>8)</sup>, MDMA(엑스터시), YABA<sup>9)</sup>, 크라톱<sup>10)</sup>, 벤질피페라진<sup>11)</sup>, 케타민, 알프라졸람 등 다양해지고 있음
- 일부 신종 마약은 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인터넷 등을 통해 구하기 쉽고 값이 저렴하면서도 환각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젊은 층과 중독자들에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임

8) 일명 '합성대마'로 대마초와 비슷한 환각효과를 나타내며, 대마와 달리 냄새가 없고, 환각성·마취성이 훨씬 강함

9) 본래 미얀마어로 'YAMA'라고 불리며, 태국에서는 'Methamphetamine Yaba' 또는 'Methamphetamine Tablet'이라고 지칭하고, 동남아시아 최대마약 조직인 쿤사가 메스암페타민(25%), 카페인(70%), 기타(코데인 등 5%)을 합성하여 개발한 마약으로 환각성·중독성이 강함

10)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로 태국 등 원주민들이 힘든 일을 견뎌내기 그 잎을 씹거나 차로 마시거나 그 분말을 타서 복용해 왔으며, 각성·진정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

11) 화학물질 합성에 주로 사용되는 중간물질로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고, 항우울 효과 및 인체 내에 흥분제로 작용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6. 외국인 마약류 사범 현황

[표 3-23]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속사범수	298	928	890	858	295
증감률(%)	156.9	211.4	-4.1	-3.6	-65.6

- 2000년 이후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체류 증가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05년도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영향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음
- 2007년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2008년도부터는 영어권 나라 출신 강사의 국내체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으로 2011년도에는 27개국 총 295명으로 전년(31개국 858명)대비 65.6% 감소하였음

[표 3-24] 외국인 마약류 사범 마약류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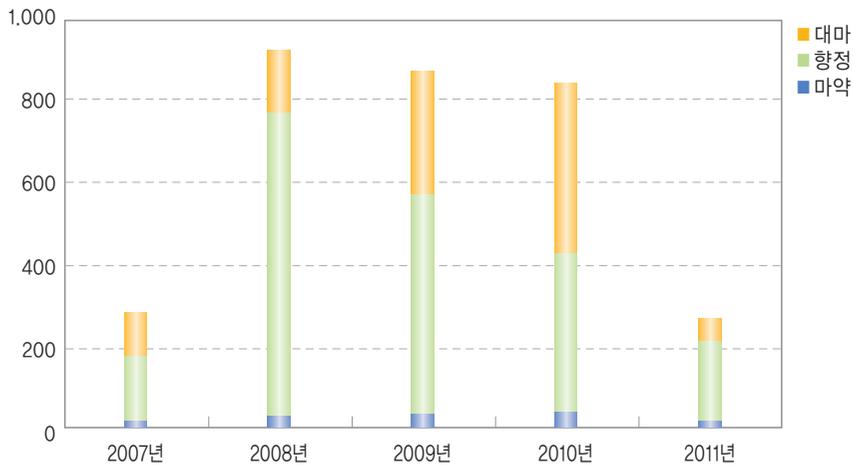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298 (100)	928 (100)	890 (100)	858 (100)	295 (100)
마 약	13 (4.4)	29 (3.1)	32 (3.6)	43 (5.0)	12 (4.1)
향 정	165 (55.4)	727 (78.3)	547 (61.5)	390 (45.5)	208 (70.5)
대 마	120 (40.3)	172 (18.5)	311 (34.9)	425 (49.5)	75 (25.4)

※ ( )는 구성비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1999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대부분 대마사범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도부터 향정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도 이후엔 향정사범이 대마사범을 추월하였고, 2011년도에는 대마사범 25.4%, 향정사범이 70.5%의 점유율을 보임
-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인터넷 등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JWH-018 등 신종 향정 마약류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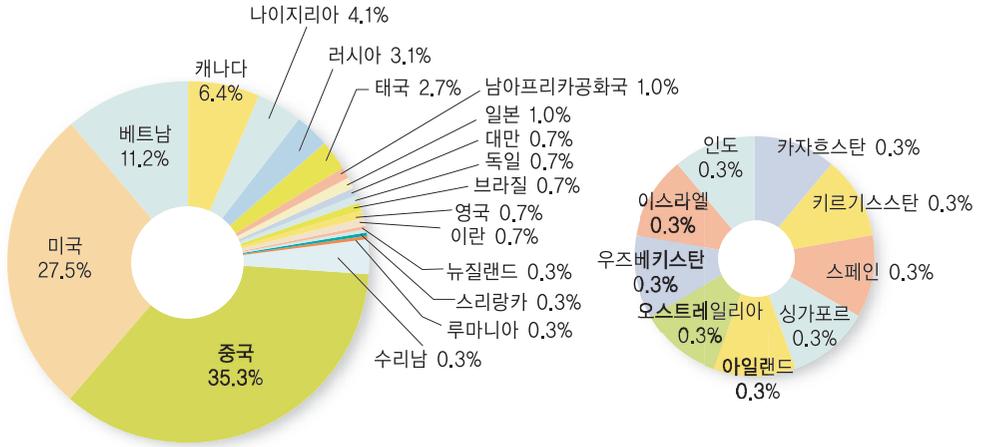
[그림 3-9]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현황

[표 3-25]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 순위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1	중 국	태 국	태 국	태 국	중 국
2	태 국	미 국	미 국	스리랑카	미 국
3	미 국	중 국	중 국	미 국	베트남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그림 3-10] 2011년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가별 구성비

제 3 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3-26]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마약류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마약	향정	대마	계	마약	향정	대마												
합	298	13	165	120	928	29	727	172	890	32	547	311	858	43	390	425	295	12	208	75
미	47	0	8	39	63	2	23	38	66	4	16	46	96	8	26	62	81	2	41	38
이	6	5	0	1	5	4	0	1	4	2	0	2	1	1	0	0	2	0	2	0
태	52	0	49	3	711	17	625	69	578	2	410	166	419	0	284	135	8	1	5	2
몽	2	0	0	2	1	0	0	1												
나	1	0	0	1	5	0	1	4	7	1	2	4	5	0	2	3	12	0	12	0
중	63	3	60	0	43	0	43	0	50	4	45	1	52	4	47	1	104	6	98	0
캐	31	1	3	27	13	0	0	13	21	1	6	14	12	0	4	8	19	0	3	16
우	2	0	0	2	5	0	0	5	4	0	0	4	11	1	0	10	1	0	0	1
일	2	0	2	0	12	0	12	0	7	0	6	1	3	1	2	0	3	0	3	0
베	1	0	0	1					21	13	8	0	9	7	2	0	33	1	32	0
대	2	0	2	0	2	0	2	0	10	1	8	1	7	0	3	4	2	0	2	0
호	6	0	1	5	2	0	2	0	4	0	1	3	2	0	0	2	1	0	1	0
러	8	1	0	7	19	1	2	16	39	0	2	37	51	13	4	34	9	0	1	8
영	7	0	0	7	5	0	0	5	2	0	1	1	2	0	0	2	2	0	1	1
카	1	0	1	0	2	0	1	1	2	0	0	2	7	2	0	5	1	0	1	0
슬	1	0	0	1																
브	2	1	1	0													2	0	0	2
필	39	0	28	11	2	0	2	0	41	2	35	4	9	0	3	6				
파	1	0	0	1	1	1	0	0	5	1	0	4	2	2	0	0				
가	9	0	7	2	11	0	10	1	4	0	3	1	25	0	0	25				
리									1	0	0	1	0	0	0	0				
뉴	1	0	1	0	2	0	0	2	4	0	0	4	2	0	2	0	1	0	1	0
페	1	1	0	0									0	0	0	0				
스	5	1	0	4	11	1	0	10	9	0	0	9	124	2	3	119	1	0	0	1
프	2	0	0	2	1	0	0	1					1	0	1	0				
스													1	0	0	1				
우													1	0	1	0				
이						1	0	0	1	1	0	0	1							
네																				
아	1	0	0	1	1	0	0	1									1	0	1	0
아					2	2	0	0					1	1	0	0				
키	1	0	0	1									3	0	0	3	1	1	0	0
홍									1	1	0	0	4	0	2	2				
아	1	0	0	1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단위: 명)

구분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마약	향정	대마																	
인도네시아	3	0	2	1	2	0	2	0													
남아프리카공화국					2	0	1	1	4	0	3	1					3	0	2	1	
방글라데시					1	0	0	1	1	0	0	1	2	1	1	0					
양글라					1	0	1	0													
인도					1	1	0	0					1	0	0	1	1	0	0	1	
토바고					1	0	0	1													
스페인									1	0	0	1					1	0	1	0	
싱가포르									1	0	1	0	2	0	2	0	1	0	0	1	
요르단									1	0	0	1	1	0	1	0					
탄자니아									1	0	0	1									
가봉													1	0	0	1					
체코													1	0	0	1					
독일																	2	0	0	2	
루마니아																	1	0	1	0	
수리남																	1	1	0	0	
이스라엘																	1	0	0	1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3-27] 외국인 마약류 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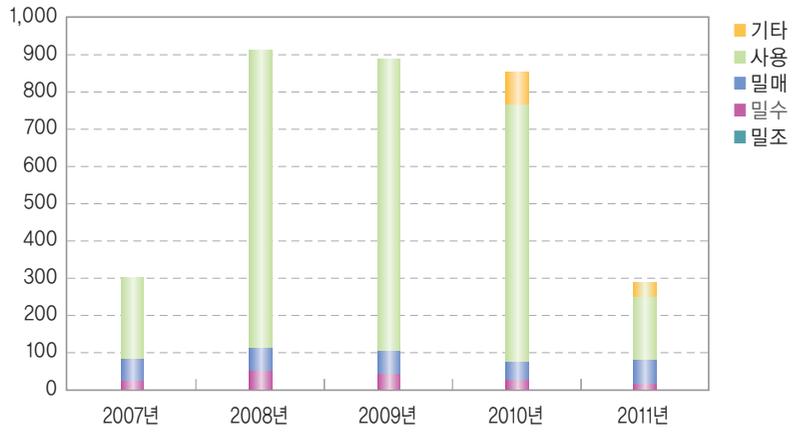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유형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298 (100)	928 (100)	890 (100)	858 (100)	295 (100)
밀 조	0 (0.0)	0 (0.0)	0 (0.0)	1 (0.1)	2 (0.7)
밀 수	21 (7.0)	51 (5.5)	34 (3.8)	25 (2.9)	18 (6.1)
밀 매	48 (16.1)	63 (6.8)	61 (6.9)	37 (4.3)	55 (18.6)
사 용	229 (76.4)	814 (87.7)	795 (89.3)	704 (82.1)	186 (63.1)
기 타	0 (0.0)	0 (0.0)	0 (0.0)	91 (10.6)	34 (11.5)

※ ( )는 구성비

-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범죄유형별로는 2003년도까지 밀수, 밀매, 사용사범이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였으나, 2004년도부터 사용사범 급증과 함께 그 점유율도 2009년도에 89.3%까지 늘어났으나 2010년도부터 사용사범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반면 밀매사범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국제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국적(27개국)이 다변화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2011년도에도 다양한 국적 중에서 여전히 중국과 미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전체적으로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강사)과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권(공장 근로자) 국적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그림 3-11]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3-28]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밀조	밀수	밀매	사용	계	밀조	밀수	밀매	사용	계	밀조	밀수	밀매	사용	계	밀조	밀수	밀매	사용	기타	계	밀조	밀수	밀매	사용	기타	
합	계	298	0	21	48	229	928	0	51	63	814	890	0	34	61	795	858	1	25	37	704	91	295	2	18	55	186	34
미	국	47	0	1	9	37	63	0	1	21	41	66	0	3	10	53	96	0	5	16	50	25	81	2	4	11	57	7
이	란	6	0	1	0	5	5	0	3	0	2	4	0	2	1	1	1	0	0	0	1	0	2	0	2	0	0	0
태	국	52	0	0	1	51	711	0	33	0	678	578	0	10	2	566	419	0	8	0	398	13	8	0	0	0	4	4
몽	골	2	0	0	2	0	1	0	0	1	0	2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나	이 지 리 아	1	0	0	0	1	5	0	2	1	7	0	1	4	2	5	0	2	0	3	0	12	0	1	9	0	2	
중	국	63	0	6	13	44	43	0	3	14	26	50	0	4	16	30	52	1	7	8	17	19	104	0	8	23	62	11
캐	나 다	31	0	2	7	22	13	0	0	4	9	21	0	3	3	15	12	0	0	3	6	3	19	0	3	3	12	1
우	즈 베 키 스 탄	2	0	0	0	2	5	0	0	0	5	4	0	0	0	4	11	0	0	0	11	0	1	0	0	0	1	0
일	본	2	0	0	1	1	12	0	2	10	0	7	0	1	6	0	3	0	0	2	1	0	3	0	0	0	2	1
베	트 남	1	0	0	1	0						21	0	0	4	17	9	0	1	0	7	1	33	0	0	0	32	1
대	만	2	0	0	1	1	2	0	0	1	1	10	0	0	4	6	7	0	0	0	6	1	2	0	0	0	2	0
호	주	6	0	1	2	3	2	0	0	0	2	4	0	1	0	3	2	0	0	0	2	0	1	0	0	0	1	0
러	시 아	8	0	1	0	7	19	0	2	1	16	39	0	4	1	34	51	0	0	0	51	0	9	0	0	2	2	5
영	국	7	0	0	3	4	5	0	0	4	1	2	0	0	1	1	2	0	0	0	2	0	2	0	0	0	2	0
프	랑 스	2	0	0	1	1	1	0	0	0	1					1	0	0	1	0	0							
카	자 흐 스 탄	1	0	0	0	1	2	0	0	0	2	2	0	0	0	2	7	0	0	0	7	0	1	0	0	0	0	1
슬	로 베 니 아	1	0	0	1	0																						
브	라 질	2	0	0	2	0																2	0	0	2	0	0	
필	리 핀	39	0	5	2	32	2	0	0	0	2	41	0	1	4	36	9	0	0	1	8	0						
파	키 스 탄	1	0	0	0	1	1	0	0	0	1	5	0	0	0	5	2	0	1	1	0	0						
가	나	9	0	3	0	6	11	0	3	0	8	4	0	1	1	2	25	0	0	0	1	24						
인	도 네 시 아	3	0	1	0	2	2	0	0	0	2																	
스	리 랑 카	5	0	0	1	4	11	0	0	1	10	9	0	0	0	9	124	0	0	0	122	2	1	0	0	0	1	0
뉴	질 랜 드	1	0	0	0	1	2	0	1	0	1	4	0	2	0	2	2	0	0	2	0	0	1	0	0	0	1	0
리	비 아										1	0	0	0	1													
스	와 질 랜 드															1	0	0	0	1	0							
이	집 트						1	0	0	0	1	1	0	0	0	1												
우	크 라 이 나															1	0	0	0	1	0							
페	루	1	0	0	0	1																						
네	덜 랜 드																											
아	일 랜 드	1	0	0	0	1	1	0	0	1	0											1	0	0	1	0	0	
아	프 가 니 스 탄						2	0	0	0	2					1	0	0	1	0	0							
키	르 기 스 스 탄	1	0	0	0	1										3	0	0	0	3	0	1	0	0	0	1	0	
홍	콩										1	0	0	0	1	4	0	0	0	4	0							
아	르 헨 티 나	1	0	0	1	0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2	0	0	2	0	4	0	0	4	0						3	0	0	1	2	0	
방	글 라 데 시						1	0	0	0	1	1	0	1	0	0	2	0	1	0	1	0						
양	골 라						1	0	1	0	0																	
인	도						1	0	0	0	1					1	0	0	1	0	0	1	0	0	1	0	0	
토	바 고						1	0	0	1	0																	
스	페 인										1	0	0	0	1							1	0	0	0	1	0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단위: 명)

연도별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밀조	밀수	밀매	사용	계	밀조	밀수	밀매	사용	계	밀조	밀수	밀매	사용	계	밀조	밀수	밀매	사용	기타	계	밀조	밀수	밀매	사용	기타	
싱가포르											1	0	0	0	1	2	0	0	0	0	2	1	0	0	0	1	0	
요르단											1	0	0	0	1	1	0	0	0	1	0							
탄자니아											1	0	0	0	1													
가봉																1	0	0	0	0	1							
체코																1	0	0	1	0	0							
독일																						2	0	0	1	1	0	
수리남																						1	0	0	1	0	0	
이스라엘																						1	0	0	0	1	0	
루마니아																						1	0	0	0	0	1	

[표 3-29]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21	(100)	51	(100)	34	(100)	25	(100)	18	(100)
나이지리아			2	(3.9)	1	(2.9)	2	(8.0)	1	(5.6)
중국	6	(28.6)	3	(5.9)	4	(11.8)	7	(28.0)	8	(44.4)
미국	1	(4.8)	1	(2.0)	3	(8.8)	5	(20.0)	4	(22.2)
일본			2	(3.9)	1	(2.9)				
대만										
호주	1	(4.8)			1	(2.9)				
러시아	1	(4.8)	2	(3.9)	4	(11.8)				
필리핀	5	(23.8)			1	(2.9)				
태국			33	(64.7)	10	(29.4)	8	(32.0)		
이란	1	(4.8)	3	(5.9)	2	(5.9)			2	(11.1)
캐나다	2	(9.5)			3	(8.8)			3	(16.7)
가나	3	(14.3)	3	(5.9)	1	(2.9)				
인도네시아	1	(4.8)								
뉴질랜드			1	(2.0)	2	(5.9)				
스리랑카										
양골라			1	(2.0)						
방글라데시					1	(2.9)	1	(4.0)		
베트남							1	(4.0)		
파키스탄							1	(4.0)		

※ ( )는 구성비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3-30]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순위

(단위: 명)

연도별 순위	2007	2008	2009	2010	2011
1	중 국	태 국	태 국	태 국	중 국
2	필리핀	중 국 이 란 가 나	중 국 러시아	중 국	미 국
3	가 나	나이지리아 일 본 러시아	미 국 캐나다	미 국	캐나다

-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의 경우, 2004년도 이란인(39.1%), 2005년도 미국인(13.0%), 중국인(13.0%), 2006년도 나이지리아인(40.0%), 2007년도에는 중국인(28.6%)이 주류를 이루었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태국인이 각 64.7%, 29.4%, 32.0%를 점유했으며, 2011년도에는 중국인(44.4%)이 가장 많았음

## 7.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범죄 개입 현황

### 가. 개 요

- 국내 폭력조직은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등 기업형 국제 범죄조직과 달리 소규모 단체로서 그 활동도 금품갈취 등 전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있어 마약 밀수, 밀매를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정황은 적발되지 않고 있음
- 마약류 범죄 연루 조직폭력배는 2011년도 29개파 36명으로, 대부분 단순 투약사범이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조직폭력배가 돈을 벌기 위해 소규모 마약류 밀매에 연루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2011년도 사용사범 16명, 밀매사범 12명)
- 그러나 체계적인 명령·지휘계통과 상당수의 조직원을 거느린 폭력조직이 마약류 범죄에 개입하게 되면 마약류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폭력조직이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와 같은 거대 폭력조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3-31] 조직폭력배 마약류 범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전체 마약류 사범	조직폭력배 마약류 사범	점유율(%)
2007		10,649	54	0.5
2008		9,898	42	0.4
2009		11,875	32	0.3
2010		9,732	51	0.5
2011		9,174	36	0.4

[표 3-32] 조직폭력배 마약류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유형별	합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기타)
2007		54 (100)	0	1 (1.9)	15 (27.8)	32 (59.3)	6 (11.1)
2008		42 (100)	0	0	9 (21.4)	28 (66.7)	5 (11.9)
2009		32 (100)	0	2 (6.3)	8 (25.0)	19 (59.4)	3 (9.4)
2010		51 (100)	0	7 (13.7)	19 (37.3)	17 (33.3)	8 (15.7)
2011		36 (100)	0	4 (11.1)	12 (33.3)	16 (44.4)	4 (11.1)

※ ( )는 구성비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표 3-33] 2011년도 폭력조직 마약류 범죄 지역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사용	소지 (기타)	합계
	합 계		4	12	16	4	36
서울	미아리 텍사스파		2				2
	종진파				1		1
경기	의정부 세븐파				1		1
	평택 전국구파			1			1
	소사 식구파			1			1
	부천 식구파			1			1
	부천 맘모스파				1		1
	간석 식구파			2			2
	안양 A.P파				3		3
	안양 타이거파				1		1
	부평 식구파			1			1
	충청	대전 태양회파				1	
금산 올세븐파					1		1
충주 신석만이파			2				2
보령 신태양회파				1			1
영남	김해 삼방파			1			1
	부산 칠성파					1	1
	부산 칠성해운대지부				2		2
	부산 재건기장통합파				1		1
	부산 해룡파					1	1
	부산 동방파					1	1
	부산 연산통합파				1		1
	대구 향촌동파					1	1
호남	전주 나이트파				1		1
	광주 수기동파			1			1
	광주 총장오비파				1		1
	순천 중앙파			1			1
	군산 백학관파			1			1
제주	제주 산지파			1	1		2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나. 대표적 개입사례

## ▶ 밀제조관련 사건

- 1999. 5.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대신동파」 조직원 2명이 판매를 목적으로 필로폰 9kg을 밀제조한 후 대구·부산 지역에 밀매 (대구지검)
- 2001.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면파」 행동대장 송○○ 등이 필로폰 약 10kg을 밀제조한 후 부산·대구 지역에 밀매 (서울지검)
- 2003. 11.경 일본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 「마쯔바카이파」부두목 후○ ○○○○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밀수한 필로폰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려고 필로폰 반제품 140ml를 화장품 통속에 위장하여 국내로 밀반입 후 국내 제조기술자와 접촉을 시도하려다 적발 (서울지검)

## ▶ 밀수관련 사건

- 2007. 8.경 성남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 김○○ 중국에서 필로폰 11.9g 밀반입 및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07. 9.경 일본 최대 폭력조직 「야마구치구미」의 중간 보스 이○ 노○○○ 등 피의자들은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가공 및 재포장 과정을 거쳐 이를 재차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여, 2007. 9. 28.경 홍콩발 김해공항행 항공기에 필로폰 약 615g을 소지한 채 국내로 들어와 이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11. 8.경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부산지검)
- 2009. 9.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행동대원 박○○ 태국에서 필로폰 9.74g 밀수 (인천지검)
- 2010. 1.경 미국 LA 한인지역 갱단 「LGKK」 조직원 ○○○은 특수강도죄 등 혐의로 2001. 6.경 강제 추방되어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48.2g을 페덱스 국제특송 화물로 송부하여 인천공항으로 밀수 (서울중앙지검)
- 2010. 3.경 일본 야쿠자 조직중 하나인 「스미요시파」 간부 ○○○ 필로폰 987g을 중국에서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구입하여 한국을 경유 일본으로 밀수출할 목적으로 인천항으로 밀수 (인천지검)

- 2010. 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신림동이글스파」 행동대원 ○○○ 중국에서 필로폰 46.58g 밀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 2010. 4.경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 심양 두목 ○○○ 중국에서 필로폰 900g 밀수 (서울중앙지검)
- 2010. 3.~4.경 충주지역 폭력조직 「신석만이파」 부두목인 ○○○ 태국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37g 밀수(2011. 3. 청주지검)

#### ▶ 밀매관련 사건

- 2007. 3.경 서울 폭력조직 「로얄박스파」 행동대원 최○○은 사건의 설○○에게 필로폰 약 0.58g을 30만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는 등 투약하고 소지 (고양지청)
- 2007. 4.경 청주 폭력조직 「시라소니파」 조직원 이○○, 청주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방○○은 공모하여 사건의 김○○에게 16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8.62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 (대전지검)
- 2007. 8.경 제주지역 폭력조직 「산지파」 조직원 이○○ 필로폰 밀매 (제주지검)
- 2008.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원대동파」 고문 김○○은 대구 시내 일원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0.18g을 밀매 (대구지검 서부지청)
- 2008. 2.~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면파」 조직원 신○○ 필로폰 밀매 및 투약 (울산지검)
- 2008. 7.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꿀망파」 조직원 김○○ 필로폰 약 253.5g 밀매 알선 및 2g 매수 (인천지검)
- 2008. 8.경 부평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 유○○ 필로폰 약 1.4g 밀매 알선 및 투약, 대마 흡연 (인천지검)
- 2009.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 최○○ 필로폰 약 0.12g 밀매 및 투약 (울산지검)
- 2009. 8.경 창원지역 폭력조직 「영철파」 조직원 김○○ 필로폰 약 0.5g 밀매 (창원지검)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008. 11.~2009. 10.경 일본 야쿠자 조직중 하나인 「스미요시파」 조직원 장○○ 필로폰 0.4g 매도 등 6회에 걸쳐 알선 및 수수, 투약 (서울서부지검)
- 2009. 8.~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기장통합파」 두목 이○○ 필로폰 0.4g 매도 등 투약 (부산지검동부지청)
- 2010. 10.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정릉파」 두목 이○○ 필로폰 0.3g 매도 및 3.5g 매수 (평택지청)
- 2008. 11.~2009. 10.경 일본 야쿠자 조직중 하나인 「스미요시파」 조직원 ○○○ 필로폰 0.4g 매도 등 6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 (서울서부지검)
- 2009. 3.~2009. 12.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천호동 구사거리파」 조직원 ○○○ 필로폰 0.7g 밀매 등 수수 (서울중앙지검)
- 2009. 6.~2010.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 ○○○ 필로폰 0.4g 밀매 등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08. 4.~2010. 1.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원 ○○○, ○○○ 필로폰 0.8g 밀매 등 수회에 걸쳐 매수, 소지, 투약 (수원지검)
- 2009. 9.~2010.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 ○○○ 필로폰 0.6g 매도 등 수회 밀매 및 교부 (수원지검)
- 2010. 7~8.경 평택지역 폭력조직 「전국구파」 행동대원 ○○○ 필로폰 밀매(대전지검 천안지청)
- 2010. 8.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 ○○○ 필로폰 밀매(서울중앙지검)
- 2010. 12.~2011.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인천 부평식구파」 행동대원 ○○○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플 8,000앰플(20ml 주사액)을 술집 여종업원 등에게 밀매(인천지검)
- 2011. 1.경 부천시지역 폭력조직 「소사식구파」 행동대원 ○○○ 필로폰 밀매(인천지검 부천시청)
- 2011. 2.~4.경 군산지역 폭력조직 「백학관파」 행동대원 ○○○ 필로폰 약 9.8g 밀매 및 약 11.3g 알선(전주지검)
- 2011. 3.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 ○○○ 필로폰 밀매(인천지검 부천시청)
- 2011. 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행동대원 ○○○ 필로폰 밀매(인천지검 부천시청)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2011. 4.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 ○○○ 필로폰 밀매(광주지검)

▶ 소지·투약 등 관련 사건

- 2007. 2.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장 김○○ 필로폰 투약 (대구지검)
- 2007.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선후파」 조직원 전○○ 필로폰 혼합물 501g(순수 메스암 페타민 약 27g) 소지 (부산지검)
- 2007.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칠성파」 행동대장 정○○ 필로폰 투약 (평택지청)
- 2007. 4.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방어진파」 조직원 박○○ 필로폰 투약 (평택지청)
- 2007.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학이파」 행동대원 강○○, 필로폰 투약 및 19.84g 소지 (울산지검)
- 2007.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 전○○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07. 6.경 여수지역 폭력조직 「여수중앙파」 두목 박○○ 수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순천지청)
- 2007.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 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07.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동석이파」 두목 우○○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07.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동대문파」 두목 이○○ 필로폰 투약 (성남지청)
- 2007. 8.경 중국 소재 폭력조직과 연계된 국제 전화금융 사기 조직 「복건성파」 조직원 왕○○ 등 8명 MDMA 투약 (인천지검)
- 2007.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대운파」 행동대원 조○○, 「칠성파」 조직원들로부터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07.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해룡파」 두목 정○○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07. 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당감동파」 행동대원 백○○ 필로폰 소지 (부산지검)
- 2007.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면신파」 행동대장 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007. 1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월배파」 행동대원 성○○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07. 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서동파」 행동대원 유○○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부산지검)
- 2007. 11.경 오산지역 폭력조직 「오산 식구파」 조직원 공○○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수원지검)
- 2007. 8.~12.경 안동지역 폭력조직 「대명회」 조직원 유○○ 필로폰 투약 (대구지검 안동지청)
- 2007. 10.~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모라파」 조직원 권○○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울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 김○○ 필로폰 교부 및 투약 (부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동파」 조직원 김○○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해운대파」 조직원 윤○○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대운파」 조직원 안○○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 여○○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해운대지부」 조직원 강○○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부산지검 동부지청)
- 2007. 11.~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사상터미널파」 조직원 권○○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3.~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학이파」 조직원 강○○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울산지검)
- 2008. 3.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최○○ 필로폰 수수 (안양지청)
- 2008. 5.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 유○○ 필로폰 투약 (광주지검)
- 2008. 6.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 남문파」 조직원 박○○ 필로폰 교부 (수원지검)
- 2008. 6.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방어진파」 조직원 장○○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6.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조직원 유○○ 필로폰 투약 (광주지검)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2008. 8.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복공파」 조직원 공○○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진○○ 필로폰 약 80g 매수 및 투약 (인천지검)
- 2008. 7.~11.경 포천지역 폭력조직 「신천지개벽파」 부두목 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의정부지검)
- 2008.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김○○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인천지검)
- 2009. 1.~3.경 동두천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고문 이○○ 필로폰 20g 매수 및 투약 (의정부지검)
- 2006. 11.경 송탄지역 폭력조직 「중앙훼미리파」 부두목 윤○○ 필로폰 소지 (인천지검)
- 2008. 12.경 광양지역 폭력조직 「광양백호파」 두목 백○○ 필로폰 약 3g 매수 (울산지검)
- 2008. 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돈지파」 두목 이○○ 필로폰 매수 (대구서부지청)
- 2009. 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돈지파」 두목 이○○ 필로폰 매수 (대구서부지청)
- 2009. 12.~2010. 1.경 일산지역 폭력조직 「거송파」 조직원 ㄱ○○ 필로폰 0.15g 수수 등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10.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 박○○ 필로폰 4.46g 소지 (인천지검)
- 2010.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 강○○ 필로폰 0.03g 투약 (부산지검)
- 2010. 1.~11.경 의정부지역 폭력조직 「신세븐파」 행동대장 ㄱ○○ 수회에 걸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10. 10.경 평택지역 폭력조직 「청하위생파」 조직원 ㄱ○○ 필로폰 0.4g 매수 등 투약 (평택지청)
- 2010. 10.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돈암동파」 조직원 ㄱ○○ 필로폰 0.14g 투약 (평택지청)
- 2010.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 ㄱ○○ 필로폰 100g 매수 (부산지검)
- 2010. 3.~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명동신상사파」 조직원 ㄴ○○ 필로폰 2.5g 매수 (의정부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지검 고양지청)

- 2009. 2.~2010.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 ㄱㅇㅇ 필로폰 0.5g 매수 등 투약 (인천지검)
- 2011. 2.~4.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AP파」,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 ㅇㅇㅇ 등 3명 필로폰 투약(수원지검 안양지청)
- 2011.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연산통합파」 행동대장 ㅇㅇㅇ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약 1.73그램 소지(부산지검)

▶ 보복범죄 관련 사건

- 2003. 1.경 조치원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두목 설ㅇㅇ은 1999. 11.경 피해자 심ㅇㅇ가 청주지검에서 필로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공범 최ㅇㅇ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목적으로 6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협박 (대전지검)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8. 지역별 단속 현황

[표 3-34] 마약류 사범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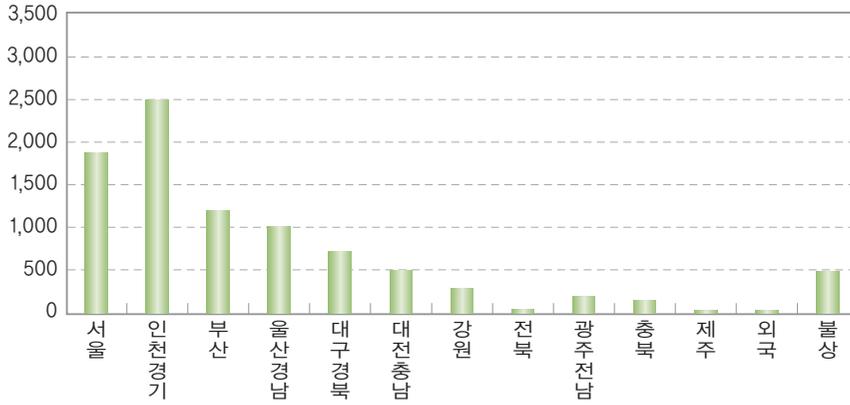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10,649 (100)	9,898 (100)	11,875 (100)	9,732 (100)	9,174 (100)
서울	1,886 (17.7)	1,663 (16.8)	2,482 (20.9)	1,964 (20.2)	1,879 (20.5)
인천·경기	2,672 (25.1)	2,754 (27.8)	3,485 (29.3)	3,074 (31.6)	2,478 (27.0)
부산	1,887 (17.7)	1,666 (16.8)	1,405 (11.8)	1,162 (11.9)	1,176 (12.8)
울산·경남	1,158 (10.9)	1,064 (10.7)	982 (8.3)	912 (9.4)	963 (10.5)
대구·경북	1,086 (10.2)	923 (9.3)	1,180 (9.9)	769 (7.9)	784 (8.5)
대전·충남	570 (5.4)	604 (6.1)	687 (5.8)	601 (6.2)	452 (4.9)
강원	257 (2.4)	208 (2.1)	264 (2.2)	262 (2.7)	324 (3.5)
전북	128 (1.2)	105 (1.1)	143 (1.2)	91 (.9)	97 (1.1)
광주·전남	240 (2.3)	285 (2.9)	384 (3.2)	181 (1.9)	226 (2.5)
충북	194 (1.8)	156 (1.6)	301 (2.5)	152 (1.6)	200 (2.2)
제주	34 (0.3)	27 (0.3)	23 (0.2)	19 (0.2)	46 (0.5)
외국	34 (0.3)	27 (0.3)	64 (0.5)	32 (0.3)	33 (0.4)
불상	503 (4.7)	416 (4.2)	475 (4.0)	513 (5.3)	516 (5.6)

※ ( )는 구성비

- 2011년도 지역별 점유율은 수도권(47.5%), 부산(12.8%), 울산·경남(10.5%), 대구·경북(8.5%), 대전·충남(4.9%) 순으로 전체사범의 79.3%(전년도 81.0%)가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3-12] 마약류 사범 지역별 현황

- 전년대비 단속인원은 대전·충남지역 24.8%, 인천·경기지역 19.4%, 서울 4.3% 순으로 감소했고, 제주 142.1%, 충북지역 31.6%, 광주·전남지역 24.9%, 강원지역 23.7%, 전북지역 6.6%, 울산·경남지역 5.6%, 대구·경북지역 2.0% 순으로 증가함

[표 3-35] 마약류 사범 지역별 증감현황

(단위: 명)

지역별	구분	2010	2011	증감률(%)
서울		1,964	1,879	-4.3
인천·경기		3,074	2,478	-19.4
부산		1,162	1,176	1.2
울산·경남		912	963	5.6
대구·경북		769	784	2.0
대전·충남		601	452	-24.8
강원		262	324	23.7
전북		91	97	6.6
광주·전남		181	226	24.9
충북		152	200	31.6
제주		19	46	142.1
외국		32	33	3.1
불상		513	516	0.6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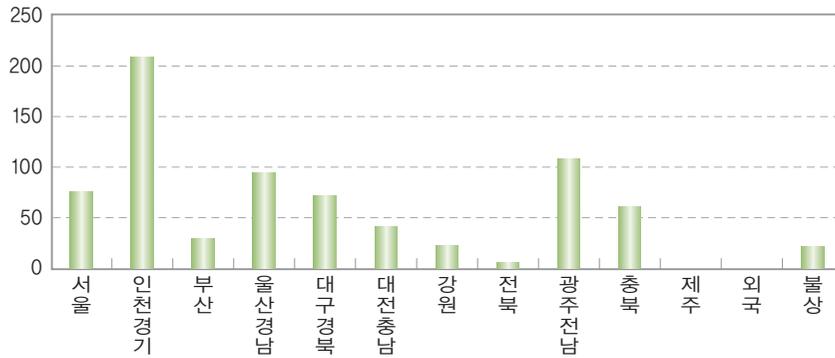
[표 3-36]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958 (100)	1,396 (100)	2,198 (100)	1,124 (100.0)	759 (100)
서울	80 (8.4)	121 (8.7)	297 (13.5)	62 (5.5)	81 (10.7)
인천·경기	346 (36.1)	565 (40.5)	828 (37.7)	435 (38.7)	210 (27.7)
부산	37 (3.9)	39 (2.8)	53 (2.4)	22 (2.0)	28 (3.7)
울산·경남	100 (10.4)	180 (12.9)	212 (9.6)	124 (11.0)	97 (12.8)
대구·경북	73 (7.6)	84 (6.0)	179 (8.1)	72 (6.4)	77 (10.1)
대전·충남	101 (10.5)	173 (12.4)	258 (11.7)	224 (19.9)	42 (5.5)
강원	13 (1.4)	15 (1.1)	43 (2.0)	14 (1.2)	24 (3.2)
전북	52 (5.4)	30 (2.1)	40 (1.8)	17 (1.5)	7 (0.9)
광주·전남	100 (10.4)	106 (7.6)	172 (7.8)	84 (7.5)	108 (14.2)
충북	40 (4.2)	64 (4.6)	88 (4.0)	51 (4.5)	61 (8.0)
제주	2 (0.2)	1 (0.1)	1 (0.0)	1 (0.1)	1 (0.1)
외국	1 (0.1)	4 (0.3)	10 (0.5)	3 (0.3)	0 (0.0)
불상	13 (1.4)	14 (1.0)	17 (0.8)	15 (1.3)	23 (3.0)

※ ( )는 구성비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3-13]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 사범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마약사범 점유율은 인천·경기지역(27.7%), 광주·전남지역(14.2%), 울산·경남지역(12.8%), 대구·경북지역(10.1%), 대전·충남지역(8.0%) 순으로 나타남
- 서울지역, 부산지역, 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강원지역, 광주·전남지역, 충북지역의 마약사범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인천·경기지역, 대전·충남지역, 전북지역의 점유율은 감소함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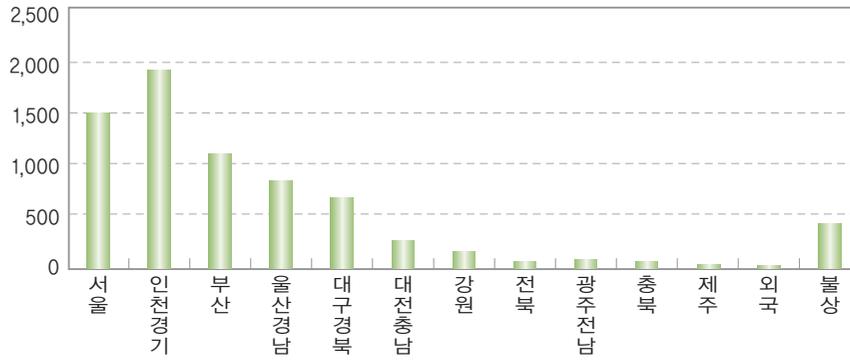
[표 3-37]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8,521 (100)	7,457 (100)	7,965 (100)	6,771 (100)	7,226 (100)
서울	1,578 (18.5)	1,384 (18.6)	1,785 (22.4)	1,479 (21.8)	1,516 (21.0)
인천·경기	1,898 (22.3)	1,858 (24.9)	2,006 (25.2)	1,803 (26.6)	1,917 (26.5)
부산	1,808 (21.2)	1,557 (20.9)	1,253 (15.7)	1,058 (15.6)	1,102 (15.3)
울산·경남	1,001 (11.7)	790 (10.6)	686 (8.6)	730 (10.8)	816 (11.3)
대구·경북	965 (11.3)	754 (10.1)	852 (10.7)	618 (9.1)	666 (9.2)
대전·충남	296 (3.5)	264 (3.5)	331 (4.2)	293 (4.3)	274 (3.8)
강원	192 (2.3)	154 (2.1)	161 (2.0)	111 (1.6)	163 (2.3)
전북	67 (0.8)	69 (0.9)	88 (1.1)	59 (0.9)	86 (1.2)
광주·전남	109 (1.3)	159 (2.1)	190 (2.4)	85 (1.3)	104 (1.4)
충북	126 (1.5)	69 (0.9)	148 (1.9)	58 (0.9)	90 (1.2)
제주	30 (0.4)	22 (0.3)	22 (0.3)	12 (0.2)	43 (0.6)
외국	22 (0.3)	17 (0.2)	42 (0.5)	24 (0.4)	28 (0.4)
불상	429 (5.0)	360 (4.8)	401 (5.0)	441 (6.5)	421 (5.8)

※ ( )는 구성비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3-14] 행정사범 지역별 현황

- 2011년도 행정사범의 점유율은 인천·경기지역(26.5%), 서울지역(21.0%), 부산지역(15.3%), 울산·경남지역(11.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행정사범의 점유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강원지역, 전북지역, 광주·전남지역, 충북지역, 제주지역은 증가한 반면, 서울지역, 인천·경기지역, 부산지역, 대전·충남지역의 점유율은 감소함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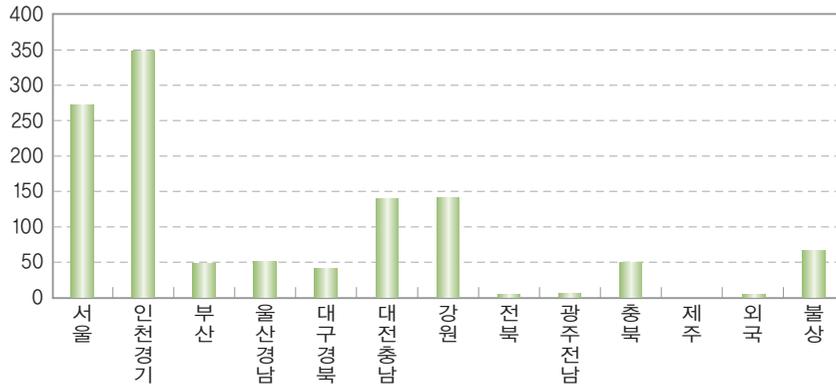
[표 3-38]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1,170 (100)	1,045 (100)	1,172 (100)	1,837 (100)	1,189 (100)
서울	228 (19.5)	158 (15.1)	400 (23.4)	423 (23.0)	282 (23.7)
인천·경기	428 (36.6)	331 (31.7)	651 (38.0)	836 (45.5)	351 (29.5)
부산	42 (3.6)	70 (6.7)	99 (5.8)	82 (4.5)	46 (3.9)
울산·경남	57 (4.9)	94 (9.0)	84 (4.9)	58 (3.2)	50 (4.2)
대구·경북	48 (4.1)	85 (8.1)	149 (8.7)	79 (4.3)	41 (3.4)
대전·충남	173 (14.8)	167 (16.0)	98 (5.7)	84 (4.6)	136 (11.4)
강원	52 (4.4)	39 (3.7)	60 (3.5)	137 (7.5)	137 (11.5)
전북	9 (0.8)	6 (0.6)	15 (0.9)	15 (0.8)	4 (0.3)
광주·전남	31 (2.6)	20 (1.9)	22 (1.3)	12 (0.7)	14 (1.2)
충북	28 (2.4)	23 (2.2)	65 (3.8)	43 (2.3)	49 (4.1)
제주	2 (0.2)	4 (0.4)	0 (0.0)	6 (0.3)	2 (0.2)
외국	11 (0.9)	6 (0.6)	12 (0.7)	5 (0.3)	5 (0.4)
불상	61 (5.2)	42 (4.0)	57 (3.3)	57 (3.1)	72 (6.1)

※ ( )는 구성비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3-15]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 2011년도 대마사범 점유율은 인천·경기지역(29.5%), 서울지역(23.7%), 강원지역(11.5%), 대전·충남지역(11.4%), 울산·경남지역(4.2%), 충북지역(4.1%), 부산지역(3.9%), 대구·경북 지역(3.4%)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울산·경남, 대전·충남, 강원, 광주·전남, 충북지역은 증가한 반면, 인천·경기, 부산, 대구·경북, 전북, 제주지역의 점유율은 감소함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9. 직업별 현황

[표 3-39] 마약류 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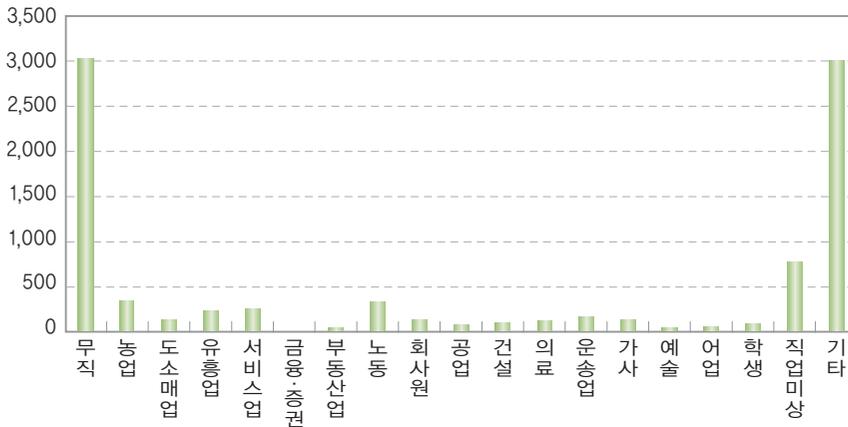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10,649 (100)	9,898 (100)	11,875 (100)	9,732 (100.0)	9,174 (100.0)
무 직	3,979 (37.4)	3,124 (31.6)	3,551 (29.9)	2,992 (30.7)	2,978 (32.5)
농 업	433 (4.1)	611 (6.2)	944 (7.9)	701 (7.2)	369 (4.0)
도소매업	422 (4.0)	367 (3.7)	330 (2.8)	237 (2.4)	170 (1.9)
유흥업	144 (1.4)	122 (1.2)	131 (1.1)	214 (2.2)	234 (2.6)
서비스업	430 (4.0)	370 (3.7)	355 (3.0)	221 (2.3)	269 (2.9)
금융/증권	27 (0.3)	16 (0.2)	35 (0.3)	12 (0.1)	4 (0.0)
부동산업	37 (0.3)	49 (0.5)	28 (0.2)	51 (0.5)	32 (0.3)
노동	447 (4.2)	423 (4.3)	468 (3.9)	429 (4.4)	347 (3.8)
회사원	850 (8.0)	765 (7.7)	1,160 (9.8)	437 (4.5)	115 (1.3)
공업	163 (1.5)	702 (7.1)	651 (5.5)	593 (6.1)	79 (0.9)
건설	123 (1.2)	107 (1.1)	111 (0.9)	93 (1.0)	101 (1.1)
의료	206 (1.9)	218 (2.2)	223 (1.9)	130 (1.3)	143 (1.6)
운송업	170 (1.6)	150 (1.5)	122 (1.0)	137 (1.4)	156 (1.7)
가사	80 (0.8)	124 (1.3)	185 (1.6)	92 (0.9)	117 (1.3)
예술/연예	24 (0.2)	18 (0.2)	43 (0.4)	42 (0.4)	33 (0.4)
어업	43 (0.4)	43 (0.4)	74 (0.6)	63 (0.6)	41 (0.4)
학생	65 (0.6)	43 (0.4)	203 (1.7)	113 (1.2)	92 (1.0)
직업미상	1,391 (13.1)	1,185 (12.0)	1,399 (11.8)	1,238 (12.7)	779 (8.5)
기타	1,615 (15.2)	1,461 (14.8)	1,862 (15.7)	1,937 (19.9)	3,115 (34.0)

※ ( ) 구성비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011년도 마약류 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32.5%), 농업(4.0%), 노동(3.8%), 서비스업(2.9%), 유흥업(2.6%), 도소매업(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직업별 변동 추이를 보면 전년도와 대비하여 무직, 유흥업, 서비스업, 의료업, 운송업이 증가하고, 나머지는 직업군은 감소함
- 특히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업군이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던 이유는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의 대폭적인 증가(2007년 52명, 2008년 711명, 2009년 578명, 2010년 419명)에 따른 것임
- 마약사범은 농업, 무직, 가사, 의료, 서비스, 노동 순으로, 향정사범은 무직, 노동, 서비스, 유흥, 도소매업 순으로, 대마사범은 무직, 노동, 농업, 서비스, 운송, 유흥업 순의 점유율을 보임



[그림 3-16] 마약류 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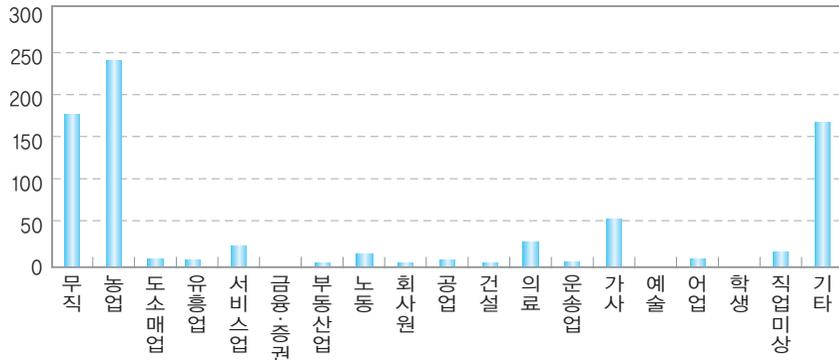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표 3-40]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958	1,396	2,198	1,124	759
무 직	336	401	764	238	174
농 업	310	497	780	593	243
도소매업	14	32	19	3	6
유 흥 업	2	1	5	0	4
서비스업	30	48	44	20	24
금융/증권	2	2	1	1	0
부동산업	2	5	2	0	1
노동	25	21	51	18	19
회사원	33	64	70	17	3
공업	10	7	15	3	6
건설	2	3	9	2	1
의료	33	56	61	44	28
운송업	9	17	24	8	4
가사	45	82	139	44	51
예술/연예	0	1	1	0	0
어업	11	8	11	8	8
학생	0	0	1	1	0
직업미상	26	50	69	23	16
기타	68	101	132	101	171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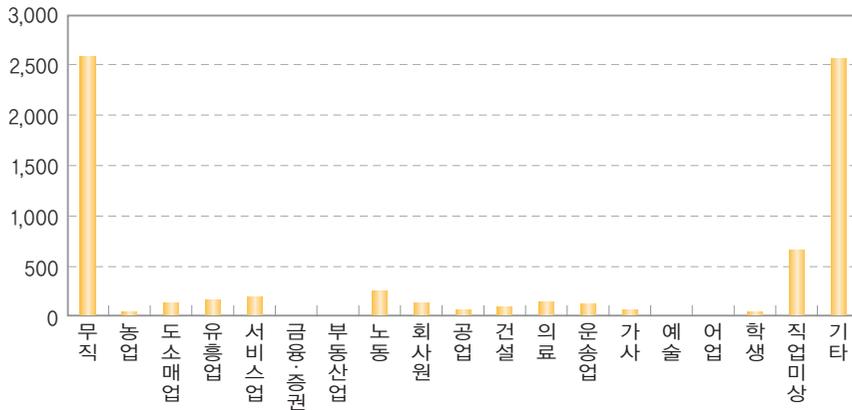
[그림 3-17]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3-41] 행정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8,521	7,457	7,965	6,754	7,226
무 직	3,372	2,494	2,462	2,372	2,562
농 업	60	45	49	54	65
도소매업	377	302	260	186	143
유 흥 업	128	112	112	175	193
서비스업	355	265	249	154	199
금융/증권	23	12	33	11	4
부동산업	28	40	21	38	20
노 동	344	316	309	283	261
회 사 원	653	596	897	290	97
공 업	131	601	441	341	42
건 설	109	87	85	72	78
의 료	172	158	160	86	115
운 송 업	129	108	72	97	112
가 사	27	40	34	43	56
예술/연예	8	11	21	4	7
어 업	26	24	20	22	26
학 생	35	30	149	66	61
직업미상	1,188	1,032	1,156	1,070	660
기 타	1,356	1,184	1,435	1,390	2,525



[그림 3-18] 행정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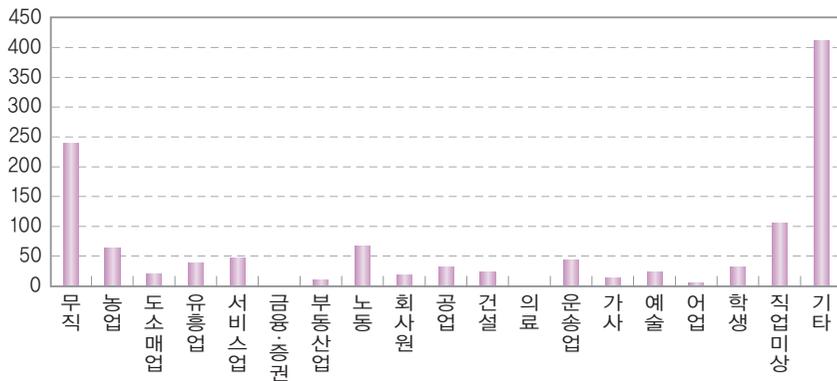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표 3-42]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1,170	1,045	1,712	1,837	1,189
무 직	271	229	325	375	242
농 업	63	69	115	54	61
도소매업	31	33	51	48	21
유흥업	14	9	14	39	37
서비스업	45	57	62	47	46
금융/증권	2	2	1	0	0
부동산업	7	4	5	13	11
노동	78	86	108	127	67
회사원	164	105	193	129	15
공업	22	94	195	249	31
건설	12	17	17	18	22
의료	1	4	2	0	0
운송업	32	25	26	31	40
가사	8	2	12	5	10
예술/연예	16	6	21	38	26
어업	6	11	43	33	7
학생	30	13	53	46	31
직업미상	177	103	174	144	103
기타	191	176	295	441	419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그림 3-19]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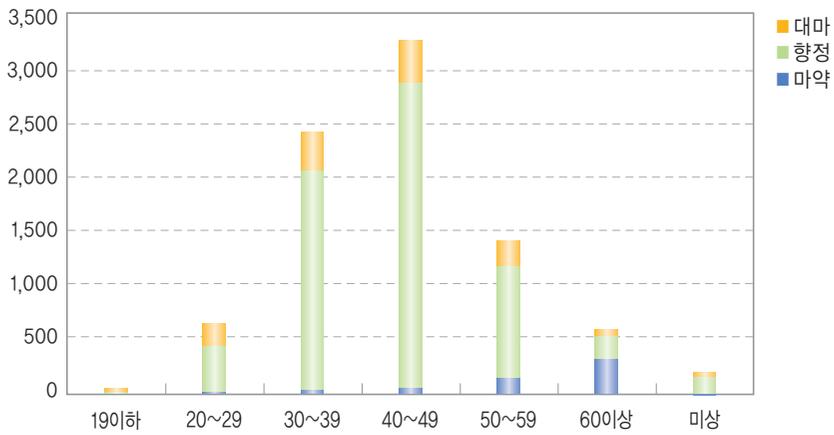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10. 연령별 현황

[표 3-43]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마약류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합 계	41 (0.4)	750 (8.2)	2,552 (27.8)	3,392 (37.0)	1,523 (16.6)	693 (7.6)	223 (2.4)	9,174 (100)
마 약	0 (0.0)	14 (1.8)	37 (4.9)	82 (10.8)	169 (22.3)	433 (57.0)	24 (3.2)	759 (100)
향 정	34 (0.5)	554 (7.7)	2,185 (30.2)	2,957 (40.9)	1,146 (15.9)	190 (2.6)	160 (2.2)	7,226 (100)
대 마	7 (0.6)	182 (15.3)	330 (27.8)	353 (29.7)	208 (17.5)	70 (5.9)	39 (3.3)	1,189 (100)



[그림 3-20]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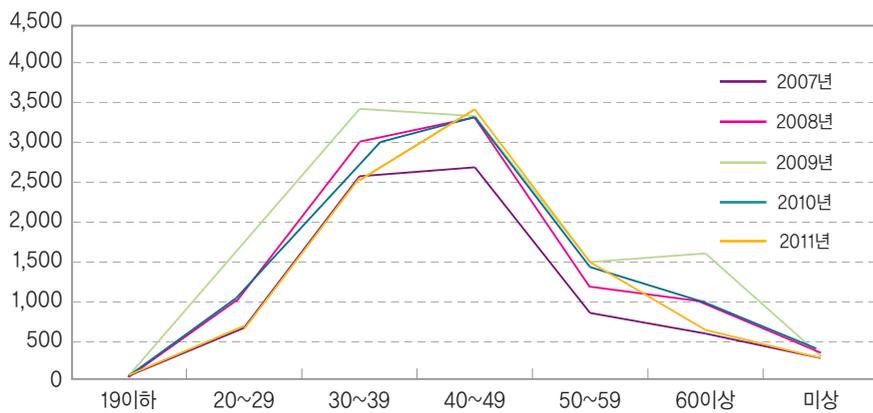
- 201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생산·근로 계층인 20~40대가 73.0%(전년도 74.1%)를 차지하여 청·장년층 마약류 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15세 미만자의 적발사례는 거의 없지만 검찰 및 유관기관의 청소년 상대 마약류퇴치 홍보 및 계몽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표 3-44]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7	19 (0.2)	1,013 (9.5)	3,460 (32.5)	3,939 (37.0)	1,173 (11.0)	709 (6.7)	336 (3.2)	10,649 (100)
2008	23 (0.2)	1,109 (11.2)	3,002 (30.3)	3,311 (33.5)	1,167 (11.8)	983 (9.9)	303 (3.1)	9,898 (100)
2009	82 (0.7)	1,608 (13.5)	3,371 (28.4)	3,297 (27.8)	1,502 (12.6)	1,643 (13.8)	372 (3.1)	11,875 (100)
2010	35 (0.4)	1,111 (11.4)	2,924 (30.0)	3,185 (32.7)	1,427 (14.7)	752 (7.7)	298 (3.1)	9,732 (100)
2011	41 (0.4)	750 (8.2)	2,552 (27.8)	3,392 (37.0)	1,523 (16.6)	693 (7.6)	223 (2.4)	9,174 (100)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그림 3-21] 연도별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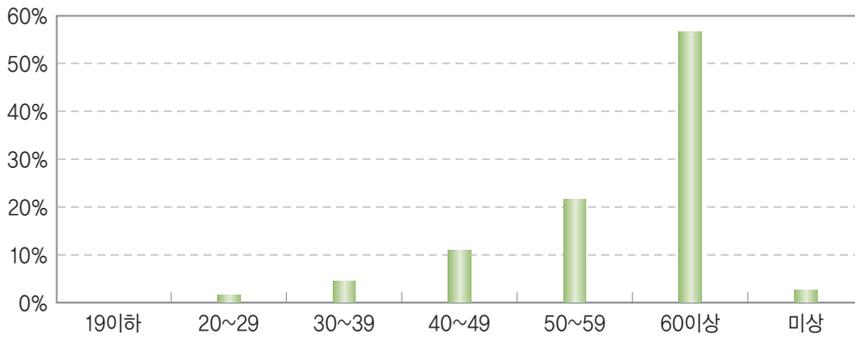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011년도 적발된 마약사범은 759명으로 전년대비 32.5% 감소하였으며, 마약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역시 60대 이상으로 그 주요 원인은 농·어촌 지역의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어민 고령층에 따른 것으로, 마약사범의 50대 이상 점유율은 79.3%에 달함

[표 3-45]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7	0 (0.0)	20 (2.1)	41 (4.3)	136 (14.2)	199 (20.8)	536 (55.9)	26 (2.7)	958 (100)
2008	0 (0.0)	18 (1.3)	59 (4.2)	161 (11.5)	308 (22.1)	821 (58.8)	29 (2.1)	1,396 (100)
2009	2 (0.1)	41 (1.9)	79 (3.6)	243 (11.1)	449 (20.4)	1,357 (61.7)	27 (1.2)	2,198 (100)
2010	0 (0.0)	25 (2.2)	57 (5.1)	133 (11.8)	327 (29.1)	567 (50.4)	15 (1.3)	1,124 (100)
2011	0 (0.0)	14 (1.8)	37 (4.9)	82 (10.8)	169 (22.3)	433 (57.0)	24 (3.2)	759 (100)



[그림 3-22] 마약사범 연령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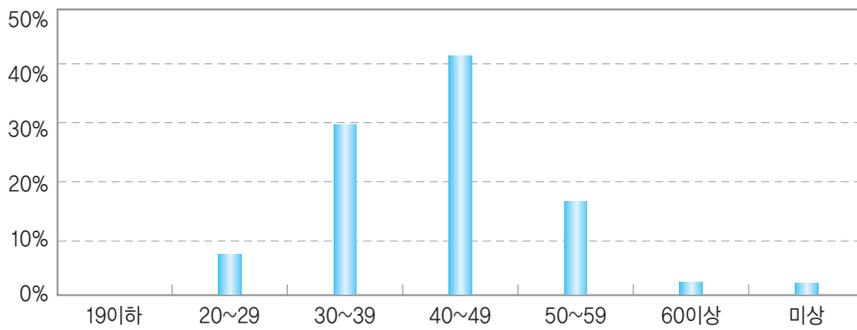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2011년도에는 향정사범이 전년대비 6.7% 증가한 가운데 20~40대의 구성비가 78.8%로 대다수를 차지

[표 3-46] 향정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7	13 (0.1)	778 (9.1)	3,080 (36.1)	3,431 (40.3)	831 (9.8)	125 (1.5)	263 (3.1)	8,521 (100)
2008	16 (0.3)	913 (12.2)	2,591 (34.7)	2,847 (38.2)	747 (10.0)	101 (1.4)	242 (3.2)	7,457 (100)
2009	55 (0.7)	1,257 (15.8)	2,767 (34.7)	2,610 (32.8)	836 (10.5)	138 (1.7)	302 (3.8)	7,965 (100)
2010	16 (0.2)	666 (9.8)	2,283 (33.7)	2,555 (37.7)	886 (13.1)	126 (1.9)	239 (3.5)	6,771 (100)
2011	34 (0.5)	554 (7.7)	2,185 (30.2)	2,957 (40.9)	1,146 (15.9)	190 (2.6)	160 (2.2)	7,226 (100)



[그림 3-23] 향정사범 연령별 구성비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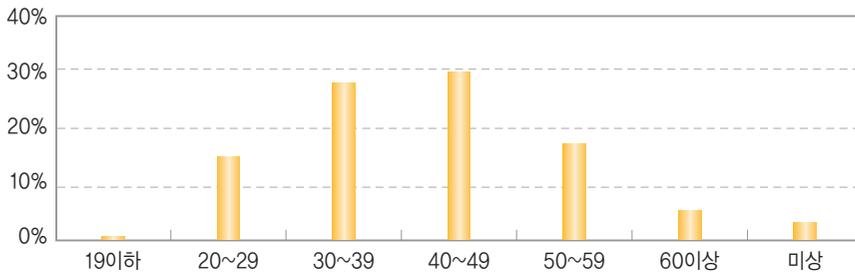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011년도 대마사범은 전년대비 35.3% 감소하였으며, 20~40대의 구성비가 72.8%로 대다수를 차지

[표 3-47]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7	6 (0.5)	215 (18.4)	339 (29.0)	372 (31.8)	143 (12.2)	48 (4.1)	47 (4.0)	1,170 (100)
2008	7 (0.7)	178 (17.0)	352 (33.7)	303 (29.0)	112 (10.7)	61 (5.8)	32 (3.1)	1,045 (100)
2009	25 (1.5)	310 (18.1)	525 (30.7)	444 (25.9)	217 (12.7)	148 (8.6)	43 (2.5)	1,712 (100)
2010	19 (1.0)	420 (22.9)	584 (31.8)	497 (27.1)	214 (11.6)	59 (3.2)	44 (2.4)	1,837 (100)
2011	7 (0.6)	182 (15.3)	330 (27.8)	353 (29.7)	208 (17.5)	70 (5.9)	39 (3.3)	1,189 (100)



[그림 3-24] 대마사범 연령별 구성비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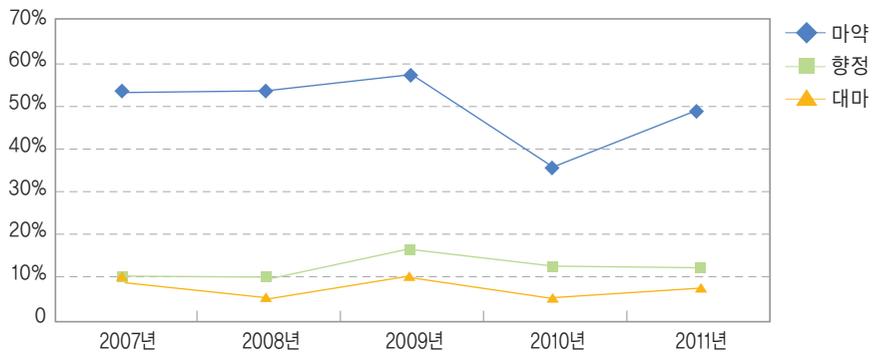
11. 성별 현황

- 전체사범 중 여성 점유율은 15.2%로 전년대비 0.9% 증가, 인원은 1,390명으로 전년대비 0.4% 감소
- 최근 5년간 성별 점유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남성 점유율은 85% 정도이고, 여성 점유율은 15% 정도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7대1임을 알 수 있음

[표 3-48] 마약류 사범 성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분		마 약		향 정		대 마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7	444 (46.3)	514 (53.7)	7,578 (88.9)	943 (11.1)	1,040 (88.9)	130 (11.1)	9,062 (85.1)	1,587 (14.9)		
2008	644 (46.1)	752 (53.9)	6,730 (90.3)	727 (9.7)	980 (93.8)	65 (6.2)	8,354 (84.4)	1,544 (15.6)		
2009	923 (42.0)	1,275 (58.0)	6,626 (83.2)	1,339 (16.8)	1,536 (89.7)	176 (10.3)	9,085 (76.5)	2,790 (23.5)		
2010	720 (64.1)	404 (35.9)	5,900 (87.1)	871 (12.9)	1,717 (93.5)	120 (6.5)	8,337 (85.7)	1,395 (14.3)		
2011	388 (51.1)	371 (48.9)	6,294 (87.1)	932 (12.9)	1,102 (92.7)	87 (7.3)	7,784 (84.8)	1,390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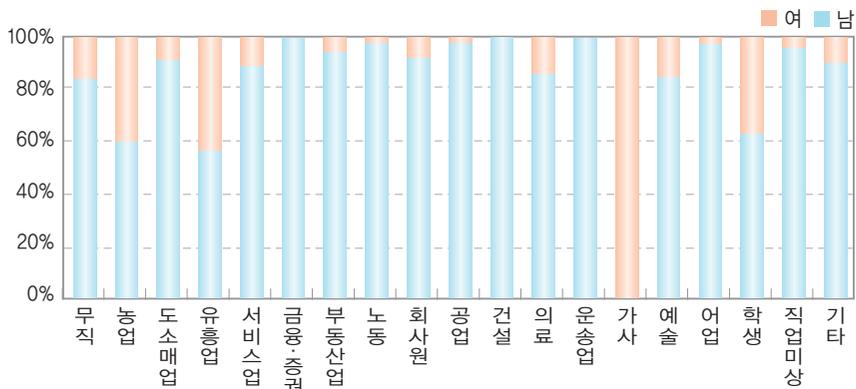
[그림 3-25] 마약류 사범 마약류별 여성비율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3-49] 마약류 사범 성별·직업별 구성비

(단위: 명)

직업별	성별	남		여	
		명	비율(%)	명	비율(%)
합 계		7,784	(84.8)	1,390	(15.2)
무 직		2,444	(82.1)	534	(17.9)
농 업		224	(60.7)	145	(39.3)
도소매업		157	(92.4)	13	(7.6)
유 흥 업		130	(55.8)	103	(44.2)
서비스업		240	(89.2)	29	(10.8)
금융/증권		4	(100.0)	0	(0.0)
부동산업		30	(93.8)	2	(6.3)
노 동		339	(97.7)	8	(2.3)
회 사 원		105	(91.3)	10	(8.7)
공 업		76	(96.2)	3	(3.8)
건 설		101	(100.0)	0	(0.0)
의 료		119	(83.2)	24	(16.8)
운 송 업		156	(100.0)	0	(0.0)
가 사		1	(0.9)	116	(99.1)
예술/연예		28	(84.8)	5	(15.2)
어 업		40	(97.6)	1	(2.4)
학 생		60	(65.2)	32	(34.8)
직업미상		741	(95.1)	38	(4.9)
기 타		2,789	(89.5)	327	(10.5)



[그림 3-26] 마약류 사범 성별·직업별 구성비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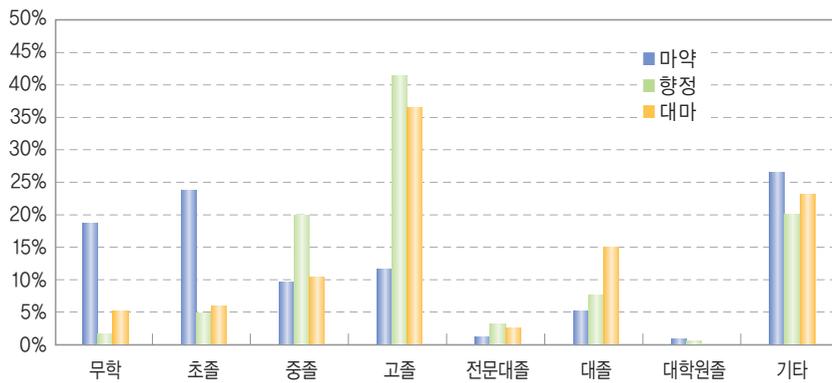
12. 학력별 현황

- 전체 마약류 사범의 학력별 점유율은 고졸이하 저학력층이 66.6%(전년도 65.4%)로 다수 차지
-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다수를 차지하는 마약사범의 경우 무학자(19.2%)와 초졸(23.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은 고졸과 중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3-50] 마약류 사범 학력별 구성비

(단위: %)

학력별 마약류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합계
마약	19.2	23.7	9.7	12.5	1.4	5.6	1.1	26.8	100
향정	1.7	4.9	19.8	41.9	3.5	8.0	0.3	19.9	100
대마	5.4	6.0	10.6	36.5	2.7	15.0	0.2	23.6	100
합계	3.7	6.7	17.7	38.5	3.2	8.7	0.3	21.0	100



[그림 3-27] 마약류 사범 학력별 구성비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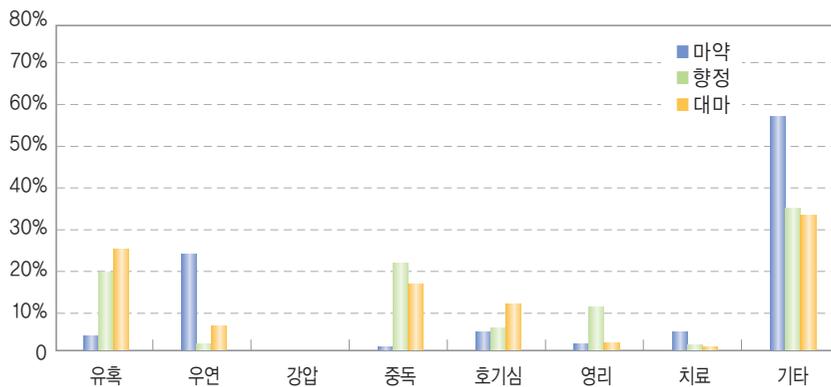
## 13. 범죄 원인별 현황

- 201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의 범죄 원인별 점유율은 중독(20.3%), 유혹(19.2%), 영리(10.1%), 호기심(7.3%), 우연(4.4%) 순으로 유혹과 우연, 호기심이 30.9%를 차지함에 따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 영리목적 마약류 범죄는 향정사범이 12.2%를 차지하여 다른 마약류 사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작년(5.2%)보다 2배(10.1%)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마약류 범죄가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됨

[표 3-51] 마약류 사범 범죄 원인별 구성비

(단위: %)

원인별 마약류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기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마약	4.3	24.5	0.0	0.5	5.8	2.4	4.8	57.6	100
향정	19.8	1.9	0.1	22.9	6.6	12.2	1.0	35.6	100
대마	25.1	6.8	0.1	17.2	12.9	2.7	0.6	34.6	100
합계	19.2	4.4	0.1	20.3	7.3	10.1	1.3	37.3	100



[그림 3-28] 마약류 사범 범죄 원인별 구성비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14. 범행 장소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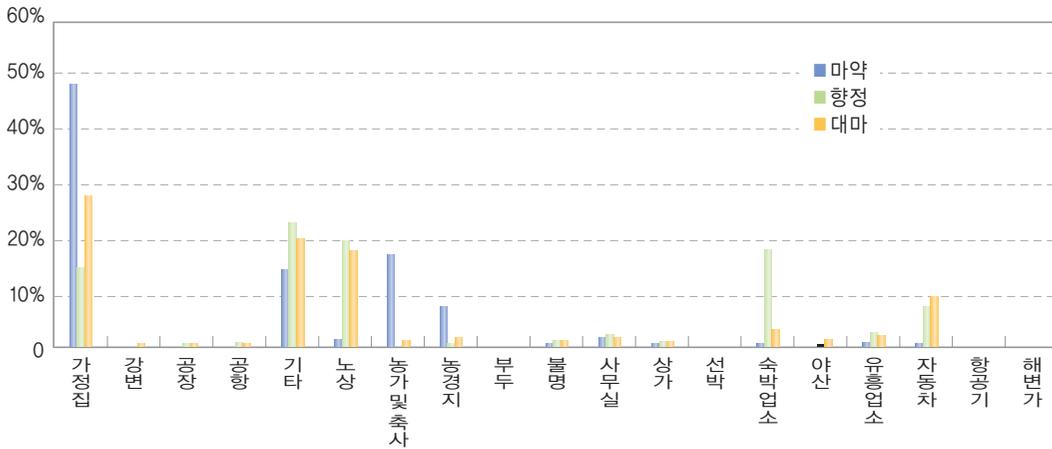
[표 3-52] 마약류 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단위: %)

범행 장소별	마약류	마약	향정	대마	합계
가정집		48.0	15.8	27.9	20.1
강변		0.0	0.0	0.1	0.0
공장		0.0	0.0	0.6	0.1
공항		0.4	1.4	1.0	1.3
기타		15.0	23.8	20.4	22.6
노상		3.0	19.6	17.5	17.9
농가 및 축사		16.8	0.1	1.9	1.7
농경지		7.4	0.0	2.2	0.9
부두		0.5	0.3	0.3	0.3
불명		0.7	2.1	2.1	2.0
사무실		3.0	3.9	3.1	3.7
상가		1.2	2.3	2.3	2.2
선박		0.4	0.1	0.3	0.2
숙박업소		1.1	18.1	4.2	14.8
야산		0.1	0.1	1.9	0.3
유흥업소		1.5	4.2	3.9	3.9
자동차		0.5	7.9	9.9	7.5
항공기		0.3	0.3	0.2	0.3
해변가		0.1	0.0	0.1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범행 장소는 가정집(20.1%), 노상(17.9%), 숙박업소(14.8%), 자동차(7.5%)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마약류 사범 특성상 특별한 범행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밀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도 다양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 마약류별로는
  - 마약사범의 경우는 가정집, 농가·축사가 64.8%(전년도 53.8%)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 도서지역 등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이 주종을 이루는 데서 기인함
  - 향정사범의 사용 장소는 주로 노상, 숙박업소, 가정집, 자동차 등 비교적 은밀한 장소를 이용하고, 거래 장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적발시 도주하기 편리한 노상이 큰 점유율을 차지
  - 대마사범은 가정집, 노상, 자동차, 숙박업소가 59.5%(전년도 4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흡연의 용이성 때문임



[그림 3-29] 마약류 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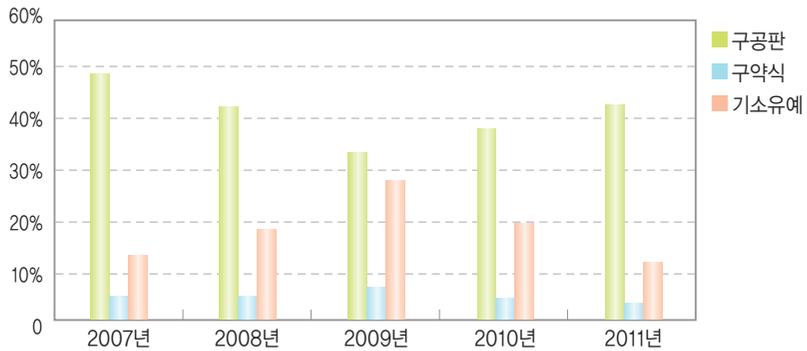
15. 검찰 처리 현황

[표 3-53] 마약류 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07	10,962 (100)	5,396 (49.2)	528 (4.8)	1,487 (13.6)	862 (7.9)	795 (7.3)	0 (0.0)	1,132 (10.3)	389 (3.5)	373 (3.4)
2008	10,303 (100)	4,370 (42.4)	466 (4.5)	1,949 (18.9)	723 (7.0)	856 (8.3)	7 (0.1)	1,166 (11.3)	302 (2.9)	464 (4.5)
2009	12,380 (100)	4,175 (33.7)	767 (6.2)	3,550 (28.7)	720 (5.8)	851 (6.9)	1 (0.0)	1,157 (9.3)	448 (3.6)	711 (5.7)
2010	10,473 (100)	3,954 (37.8)	396 (3.8)	2,123 (20.3)	752 (7.2)	1,050 (10.0)	1 (0.0)	1,379 (13.2)	317 (3.0)	501 (4.8)
2011	9,595 (100)	4,071 (42.4)	403 (4.2)	1,233 (12.9)	870 (9.1)	868 (9.0)	0 (0.0)	1,228 (12.8)	297 (3.1)	625 (6.5)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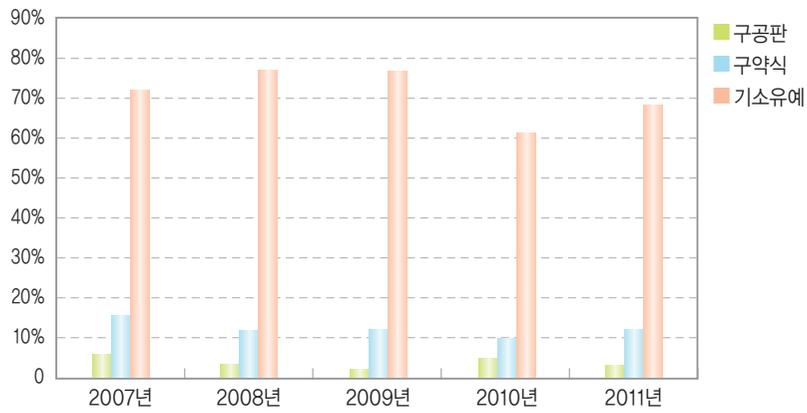
[그림 3-30] 마약류 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3-54] 마약사범 처리내역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07	950 (100)	57 (6.0)	142 (14.9)	688 (72.4)	11 (1.2)	24 (2.5)	0 (0.0)	14 (1.5)	11 (1.2)	3 (0.3)
2008	1,381 (100)	43 (3.1)	169 (12.2)	1,072 (77.6)	9 (0.7)	43 (3.1)	0 (0.0)	14 (1.0)	12 (0.9)	19 (1.4)
2009	2,197 (100)	58 (2.6)	281 (12.8)	1,718 (78.2)	13 (0.6)	60 (2.7)	0 (0.0)	19 (0.9)	24 (1.1)	24 (1.1)
2010	1,143 (100)	58 (5.1)	113 (9.9)	708 (61.9)	19 (1.7)	24 (2.1)	0 (0.0)	197 (17.2)	6 (0.5)	18 (1.6)
2011	775 (100)	28 (3.6)	99 (12.8)	534 (68.9)	20 (2.6)	32 (4.1)	0 (0.0)	23 (3.0)	19 (2.5)	20 (2.6)



[그림 3-31] 마약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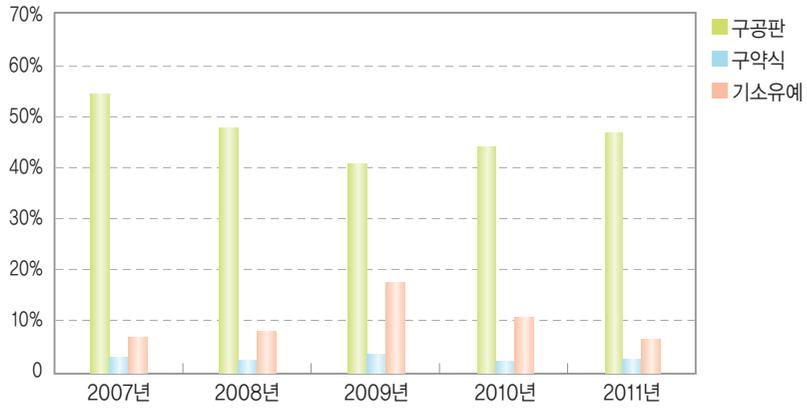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표 3-55] 행정사범 처리내역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07	8,822 (100)	4,758 (53.9)	292 (3.3)	638 (7.2)	773 (8.8)	711 (8.1)	0 (0.0)	1,010 (11.4)	318 (3.6)	322 (3.6)
2008	7,821 (100)	3,805 (48.7)	221 (2.8)	700 (9.0)	681 (8.7)	731 (9.3)	7 (0.1)	1,029 (13.2)	253 (3.2)	394 (5.0)
2009	8,398 (100)	3,416 (40.7)	319 (3.8)	1,511 (18.0)	630 (7.5)	705 (8.4)	0 (0.0)	939 (11.2)	386 (4.6)	492 (5.9)
2010	7,320 (100)	3,214 (43.9)	161 (2.2)	806 (11.0)	650 (8.9)	889 (12.1)	1 (0.0)	975 (13.3)	272 (3.7)	352 (4.8)
2011	7,532 (100)	3,517 (46.7)	198 (2.6)	531 (7.0)	757 (10.1)	716 (9.5)	0 (0.0)	1,063 (14.1)	239 (3.2)	511 (6.8)

제 3 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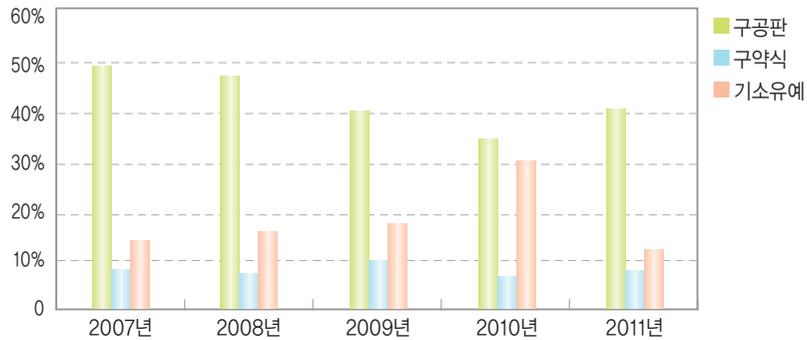
[그림 3-32] 행정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3-56] 대마사범 처리내역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07	1,190 (100)	581 (48.8)	94 (7.9)	161 (13.5)	78 (6.6)	60 (5.0)	0 (0.0)	108 (9.1)	60 (5.0)	48 (4.0)
2008	1,101 (100)	522 (47.4)	76 (6.9)	177 (16.1)	33 (3.0)	82 (7.4)	0 (0.0)	123 (11.2)	37 (3.4)	51 (4.6)
2009	1,785 (100)	701 (39.3)	167 (9.4)	321 (18.0)	77 (4.3)	86 (4.8)	1 (0.1)	199 (11.1)	38 (2.1)	195 (10.9)
2010	2,010 (100)	682 (33.9)	122 (6.1)	609 (30.3)	83 (4.1)	137 (6.8)	0 (0.0)	207 (10.3)	39 (1.9)	131 (6.5)
2011	1,288 (100)	526 (40.8)	106 (8.2)	168 (13.0)	93 (7.2)	120 (9.3)	0 (0.0)	142 (11.0)	39 (3.0)	94 (7.3)



[그림 3-33] 대마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201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의 구공판율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42.4%이나 일반 형사사범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범죄의 중대성 및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높는데 기인(2011년 일반 형사사범 : 8.0%)
- 전체 마약류 사범의 구약식률은 4.2%로 전년대비 0.4% 증가함(2011년 일반 형사사범 : 32.4%)
- 한편, 기소유예율은 전년대비 7.4% 감소한 12.9%로 나타남(2011년 일반 형사사범 : 15.8%)
-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대마사범이 40.8%, 향정사범이 46.7%인데 반해 마약사범은 3.6%에 불과한데, 이는 마약사범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에 대하여 주로 기소유예처분(68.9%)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임
- 기소중지율의 경우 대마사범이 7.2%, 향정사범이 10.1%로 마약사범의 2.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마, 향정사범의 경우 주거부정의 무직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16. 마약류 사범 1심재판 결과

[표 3-57] 마약류별 1심재판 결과

(단위: 명)

구분	재판결과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미만	3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사형	기타
합계	2010	3,932 (100)	241 (6.1)	1,367 (34.8)	712 (18.1)	1,338 (34.0)	109 (2.8)	3 (0.1)	5 (0.1)	0 (0.0)	157 (4.0)
	2011	3,304 (100)	184 (5.6)	1,138 (34.4)	435 (13.2)	1,033 (31.3)	331 (10.0)	25 (0.8)	34 (1.0)	0 (0.0)	124 (3.8)
마약	2010	75 (100)	13 (17.3)	42 (56.0)	2 (2.7)	5 (6.7)	4 (5.3)	0 (0.0)	0 (0.0)	0 (0.0)	9 (12.0)
	2011	48 (100)	23 (47.9)	16 (33.3)	0 (0.0)	1 (2.1)	0 (0.0)	0 (0.0)	1 (2.1)	0 (0.0)	7 (14.6)
향정	2010	3,183 (100)	157 (4.9)	903 (28.4)	597 (18.8)	1,280 (40.2)	104 (3.3)	3 (0.1)	5 (0.2)	0 (0.0)	134 (4.2)
	2011	2,754 (100)	102 (3.7)	810 (29.4)	385 (14.0)	973 (35.3)	319 (11.6)	25 (0.9)	33 (1.2)	0 (0.0)	107 (3.9)
대마	2010	674 (100)	71 (10.5)	422 (62.6)	113 (16.8)	53 (7.9)	1 (0.1)	0 (0.0)	0 (0.0)	0 (0.0)	14 (2.1)
	2011	502 (100)	59 (11.8)	312 (62.2)	50 (10.0)	59 (11.8)	12 (2.4)	0 (0.0)	0 (0.0)	0 (0.0)	10 (2.0)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2011년도 재판결과 점유율은 실형(56.3%), 집행유예(34.4%), 벌금(5.6%) 순으로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의 점유율에 비해 높은 것은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정자가 많고 범죄 내용이 중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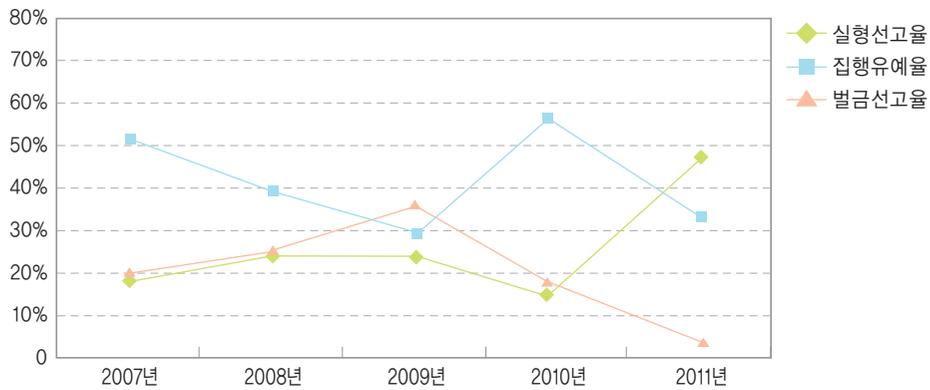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표 3-58] 마약사범 1심재판 결과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2007	15 (20.8)	37 (51.4)	6 (8.3)	2 (2.8)	5 (6.9)	0 (0.0)	0 (0.0)	0 (0.0)	7 (9.7)
2008	15 (25.9)	23 (39.7)	1 (1.7)	8 (13.8)	5 (8.6)	0 (0.0)	0 (0.0)	0 (0.0)	6 (10.3)
2009	31 (35.6)	26 (29.9)	1 (1.1)	9 (10.3)	11 (12.6)	0 (0.0)	0 (0.0)	0 (0.0)	9 (10.3)
2010	13 (17.3)	42 (56.0)	2 (2.7)	5 (6.7)	4 (5.3)	0 (0.0)	0 (0.0)	0 (0.0)	9 (12.0)
2011	23 (47.9)	16 (33.3)	0 (0.0)	1 (2.1)	0 (0.0)	0 (0.0)	1 (2.1)	0 (0.0)	7 (14.6)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그림 3-34] 마약사범 연도별 1심재판결과 추이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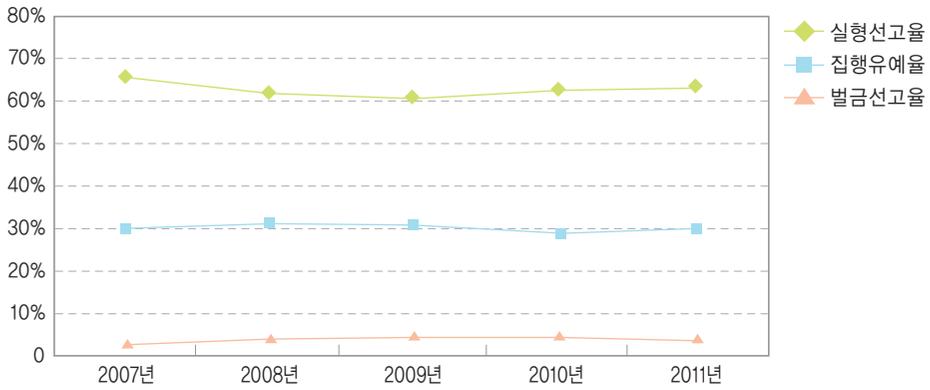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3-59] 행정사범 1심재판 결과

(단위: 명)

연도별	구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2007		151 (3.4)	1,299 (29.3)	1,008 (22.7)	1,741 (39.2)	140 (3.2)	6 (0.1)	4 (0.1)	0 (0.0)	91 (2.0)
2008		181 (4.6)	1,206 (30.9)	880 (22.6)	1,447 (37.1)	111 (2.8)	4 (0.1)	1 (0.0)	0 (0.0)	70 (1.8)
2009		160 (5.1)	966 (30.7)	669 (21.3)	1,145 (36.4)	99 (3.1)	7 (0.2)	0 (0.0)	0 (0.0)	97 (3.1)
2010		157 (4.9)	903 (28.4)	597 (18.8)	1,280 (40.2)	104 (3.3)	3 (0.1)	5 (0.2)	0 (0.0)	134 (4.2)
2011		102 (3.7)	810 (29.4)	385 (14.0)	973 (35.3)	319 (11.6)	25 (0.9)	33 (1.2)	0 (0.0)	107 (3.9)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그림 3-35] 행정사범 연도별 1심재판결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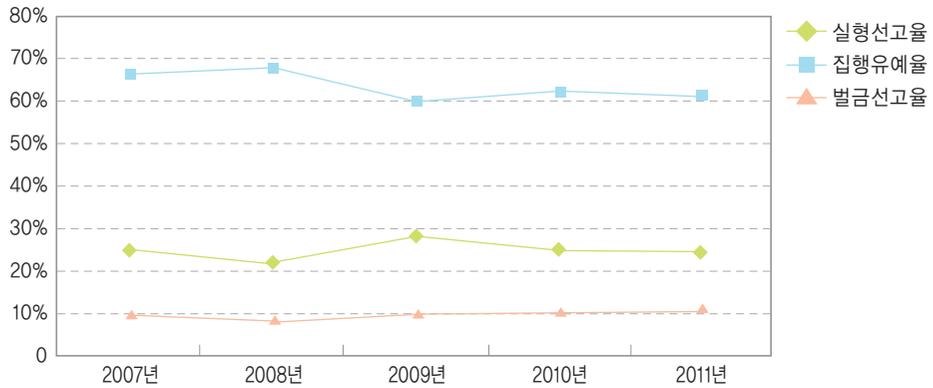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표 3-60] 대마사범 1심재판 결과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2007	50 (9.3)	358 (66.4)	88 (16.3)	36 (6.7)	1 (0.2)	1 (0.2)	0 (0.0)	0 (0.0)	5 (0.9)
2008	37 (7.5)	330 (67.2)	68 (13.8)	39 (7.9)	2 (0.4)	0 (0.0)	0 (0.0)	0 (0.0)	15 (3.1)
2009	59 (9.6)	372 (60.6)	126 (20.5)	39 (6.4)	4 (0.7)	0 (0.0)	0 (0.0)	0 (0.0)	14 (2.3)
2010	71 (10.5)	422 (62.6)	113 (16.8)	53 (7.9)	1 (0.1)	0 (0.0)	0 (0.0)	0 (0.0)	14 (2.1)
2011	59 (11.8)	312 (62.2)	50 (10.0)	59 (11.8)	12 (2.4)	0 (0.0)	0 (0.0)	0 (0.0)	10 (2.0)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그림 3-36] 대마사범 연도별 1심재판결과 추이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17.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표 3-61] 마약사범의 실형·집행유예 선고별 구성비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07	18 (22.5)	40 (50.0)	4 (5.0)	18 (22.5)	80 (100)
2008	17 (21.5)	31 (39.2)	3 (3.8)	28 (35.4)	79 (100)
2009	32 (33.7)	29 (30.5)	9 (9.5)	25 (26.3)	79 (100)
2010	9 (12.0)	46 (61.3)	3 (4.0)	17 (22.7)	75 (100)
2011	14 (23.0)	24 (39.3)	5 (8.2)	18 (29.5)	61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표 3-62] 향정사범의 실형·집행유예 선고별 구성비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07	2,955 (64.8)	1,386 (30.4)	1 (0.0)	215 (4.7)	4,557 (100)
2008	2,184 (61.9)	1,150 (32.6)	1 (0.0)	193 (5.5)	3,528 (100)
2009	2,056 (64.1)	965 (30.1)	1 (0.0)	187 (5.8)	3,209 (100)
2010	1,886 (63.7)	870 (29.4)	0 (0.0)	203 (6.9)	2,959 (100)
2011	1,555 (0.0)	(62.7) 149	774 (6.0)	(31.2) 2,479	1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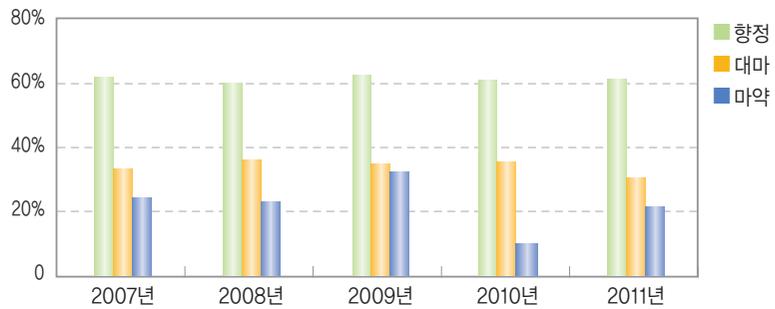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표 3-63] 대마사범의 실형·집행유예 선고별 구성비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07	260 (33.2)	464 (59.3)	2 (0.3)	57 (7.3)	783 (100)
2008	229 (36.5)	354 (56.4)	4 (0.6)	41 (6.5)	628 (100)
2009	305 (34.4)	504 (56.9)	2 (0.2)	75 (8.5)	886 (100)
2010	286 (35.6)	457 (56.9)	1 (0.1)	59 (7.3)	803 (100)
2011	169 (31.5)	320 (59.7)	0 (0.0)	47 (8.8)	536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그림 3-37] 마약류별 실형 구성비

제 3 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18.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표 3-64] 마약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 원)
2007	0 (0.0)	40 (26.5)	31 (20.5)	43 (28.5)	37 (24.5)	1,299,338
2008	1 (0.6)	42 (24.3)	50 (28.9)	54 (31.2)	26 (15.0)	833,526
2009	0 (0.0)	70 (24.5)	79 (27.6)	100 (35.0)	37 (12.9)	805,594
2010	0 (0.0)	25 (21.6)	33 (28.4)	37 (31.9)	21 (18.1)	1,018,966
2011	0 (0.0)	16 (19.3)	18 (21.7)	31 (37.3)	18 (21.7)	1,153,012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분포비율

[표 3-65] 향정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 원)
2007	0 (0.0)	6 (2.2)	12 (4.5)	43 (16.0)	208 (77.3)	3,048,496
2008	0 (0.0)	10 (4.6)	15 (6.9)	21 (9.7)	170 (78.7)	3,543,519
2009	0 (0.0)	7 (2.4)	6 (2.1)	53 (18.0)	229 (77.6)	2,663,918
2010	0 (0.0)	2 (1.5)	4 (2.9)	28 (20.6)	102 (75.0)	3,169,853
2011	0 (0.0)	3 (1.7)	2 (1.1)	24 (13.4)	150 (83.8)	3,599,441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분포비율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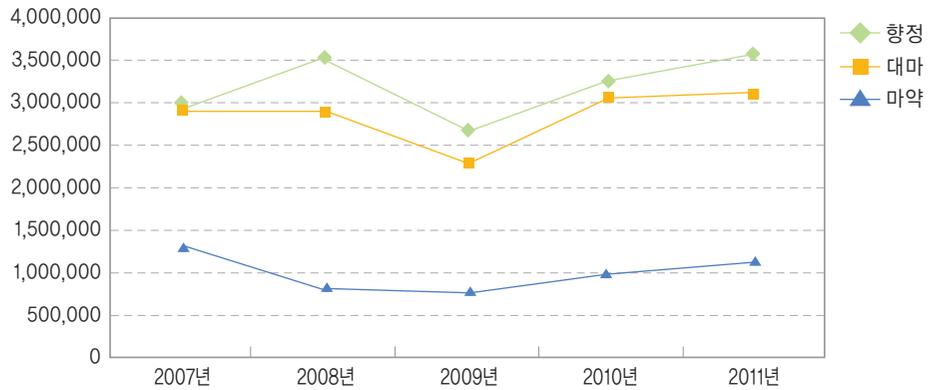
[표 3-66] 대마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금액별 연도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원)
2007	0 (0.0)	0 (0.0)	3 (3.2)	19 (20.0)	73 (76.8)	2,982,105
2008	0 (0.0)	3 (4.0)	2 (2.7)	18 (24.0)	52 (69.3)	2,953,333
2009	0 (0.0)	5 (2.9)	10 (5.7)	48 (27.4)	112 (64.0)	2,351,429
2010	0 (0.0)	0 (0.0)	4 (3.5)	16 (14.0)	94 (82.5)	3,045,614
2011	0 (0.0)	2 (2.2)	2 (2.2)	7 (7.8)	79 (87.8)	3,158,889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분포비율



[그림 3-38] 마약류별 약식명령 평균금액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19. 실행자·집행유예자의 형기평균

- 2011년도 마약·향정·대마사범 모두의 실행 및 집행유예기간이 증가함

[표 3-67] 마약류별 실행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단위: 월)

구분 연도별	마약		향정		대마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2007	14.1	26.5	16.4	26.7	21.2	24.9
2008	17.2	26.2	15.8	25.8	24.1	25.2
2009	14.5	26.0	16.0	26.2	41.8	26.1
2010	14.7	26.5	16.9	27.1	25.1	26.9
2011	25.2	26.6	25.8	27.5	35.1	32.5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20.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표 3-68] 마약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단위: 명)

기간별 연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07	7 (17.5)	26 (65.0)	6 (15.0)	1 (2.5)	40 (100)
2008	2 (6.5)	24 (77.4)	5 (16.1)	0	31 (100)
2009	3 (10.3)	21 (72.4)	5 (17.2)	0	29 (100)
2010	6 (13.0)	28 (60.9)	10 (21.7)	2 (4.4)	46 (100)
2011	1 (4.2)	12 (50.0)	11 (45.8)	0 (0.0)	24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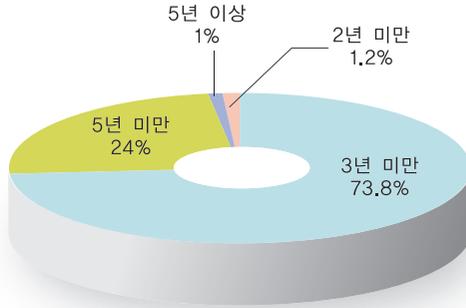
[표 3-69] 향정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단위: 명)

기간별 연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07	19 (1.4)	1,075 (77.6)	288 (20.8)	4 (0.3)	1,386 (100)
2008	27 (2.3)	953 (82.9)	166 (14.4)	4 (0.3)	1,150 (100)
2009	53 (5.5)	728 (75.4)	174 (18.0)	10 (1.0)	965 (100)
2010	22 (2.5)	636 (73.1)	209 (24.0)	3 (0.3)	870 (100)
2011	9 (1.2)	571 (73.8)	186 (24.0)	8 (1.0)	774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3-39] 향정사범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표 3-70] 대마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단위: 명)

기간별 연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07	19 (4.1)	354 (76.3)	86 (18.5)	5 (1.1)	464 (100)
2008	18 (5.1)	266 (75.1)	70 (19.8)	0	354 (100)
2009	26 (5.2)	385 (76.4)	91 (18.1)	2 (0.4)	504 (100)
2010	17 (3.7)	341 (74.6)	97 (21.2)	2 (0.4)	457 (100)
2011	6 (1.9)	247 (77.2)	67 (20.9)	0 (0.0)	320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21. 실행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표 3-71] 마약사범의 실행기간별 구성비

(단위: 명)

기간별 연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계
2007	6 (33.3)	7 (38.9)	3 (16.7)	1 (5.6)	1 (5.5)	18 (100)
2008	2 (11.8)	7 (41.2)	3 (17.7)	5 (29.4)	0	17 (100)
2009	2 (6.3)	4 (12.5)	8 (25.0)	9 (28.1)	9 (28.1)	32 (100)
2010	2 (22.2)	2 (22.2)	3 (33.3)	1 (11.1)	1 (11.1)	9 (100)
2011	1 (7.1)	7 (50.0)	2 (14.3)	1 (7.1)	3 (21.4)	14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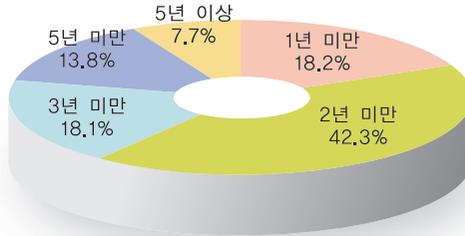
[표 3-72] 향정사범의 실행기간별 구성비

(단위: 명)

기간별 연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계
2007	994 (33.6)	1,394 (47.2)	370 (12.5)	137 (4.6)	60 (2.0)	2,955 (100)
2008	774 (35.4)	1,026 (47.0)	255 (11.7)	99 (4.5)	30 (1.4)	2,184 (100)
2009	684 (33.3)	1,053 (51.2)	180 (8.8)	94 (4.6)	45 (2.2)	2,056 (100)
2010	519 (27.6)	981 (52.2)	236 (12.5)	99 (5.3)	45 (2.4)	1,880 (100)
2011	283 (18.2)	657 (42.3)	282 (18.1)	214 (13.8)	119 (7.7)	1,555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3-40] 행정사범 실행기간별 구성비

[표 3-73] 대마사범의 실행기간별 구성비

(단위: 명)

기간별 연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계
2007	133 (51.2)	105 (40.4)	10 (3.9)	6 (2.3)	6 (2.3)	260 (100)
2008	95 (41.5)	88 (38.4)	24 (10.5)	13 (5.7)	9 (3.9)	229 (100)
2009	169 (55.4)	94 (30.8)	22 (7.2)	16 (5.3)	4 (1.3)	305 (100)
2010	131 (45.8)	120 (42.0)	19 (6.6)	12 (4.2)	4 (1.4)	286 (100)
2011	43 (25.4)	62 (36.7)	28 (16.6)	22 (13.0)	14 (8.3)	169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22. 재범현황

[표 3-74] 연도별 재범률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사범	10,649	9,898	11,875	9,732	9,174
재범인원	4,328	3,793	4,018	3,583	3,356
재범률(%)	40.6	38.3	33.8	36.8	36.6

※ 재범인원은 마약류 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인원임

- 201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6.6%로서 매년 30% 이상의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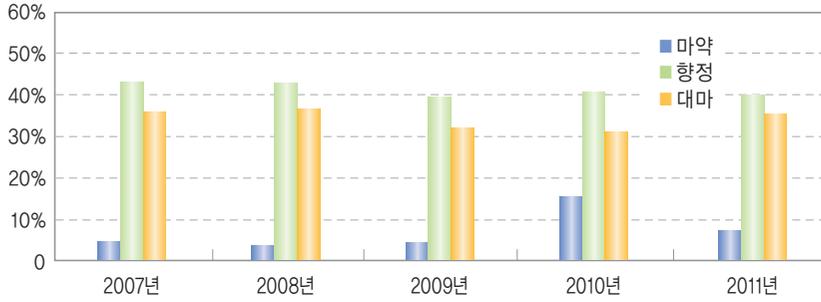
[표 3-75] 마약류별 재범률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958	8,521	1,170	1,396	7,457	1,045	2,198	7,965	1,712	1,124	6,771	1,837	759	7,226	1,189
재범인원	60	3,812	456	55	3,326	412	99	3,333	586	182	2,808	593	62	2,877	417
재범률(%)	6.3	44.7	39.0	3.9	44.6	39.4	4.5	41.8	34.2	16.2	41.5	32.3	8.2	39.8	35.1

- 최근 5년간 마약류별 재범률은 향정·대마·마약사범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05년도 이후 향정사범의 재범률이 40%대를 상회하면서 2006년도에는 51.1%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낮아져 2011년도에는 39.5%까지 내려갔으나 여전히 향정사범이 다른 마약류 사범보다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3-41]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표 3-76] 재범의 전과내역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마약	향정	대마												
재범인원 합 계	60	3,812	456	55	3,326	412	99	3,333	586	182	2,808	593	62	2,877	417
동종전과 인원	23	3,076	293	39	2,676	255	57	2,786	329	110	2,270	360	26	2,401	283
이종전과 인원	31	141	57	13	148	59	29	110	95	52	98	94	28	64	45
복합전과 인원	6	595	106	3	502	98	13	437	162	20	440	139	8	412	89

※ 복합전과인원 : 마약, 대마, 향정 중 2개 이상의 전과경력자가 재범한 인원

- 2011년도 전체 마약류 재범사범 가운데 동종 마약류 범죄 전과 인원이 2,710명으로 80.7%(전년도 76.5%), 이중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전과 인원은 137명으로 4.1%(전년도 6.8%), 복합전과 인원도 509명으로 15.2%(전년도 16.7%) 차지

## 2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감호 실적

### 가. 근거 법령

- 치료보호<sup>12)</sup>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 치료감호<sup>13)</sup> : 치료감호법

### 나.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 2011년도 치료보호인원은 총 81명으로 전년대비 64.9% 감소하였으며, 전체 치료보호인원 가운데 검찰 등 의뢰자는 21명(전년도 33명)으로 전년대비 36.4% 감소

[표 3-77] 치료보호실적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410	366	284	231	81
마 약	4	1	0	0	0
향 정	395	345	277	227	81
대 마	11	20	7	4	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 ※ 치료보호의 일환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2002년도부터 활용하고 있는 바, 그 실적은 2002년도 8명, 2003년도 22명, 2004년도 20명, 2005년도 73명, 2006년도 91명, 2007년도 102명, 2008년도 208명, 2009년도 135명, 2010년도 74명, 2011년도 87명

- 2011년도 치료감호 현황은 총 19명으로 전년도 9명대비 111.1% 증가

12) 전국 15개 국·공립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기관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 의뢰하는 조치로 입원기간은 2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임

13)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치료감호의 신고를 받은 자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약물 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됨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3-78] 치료감호실적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67	52	33	9	19
마 약	0	0	0	0	0
향 정	66	51	33	9	18
대 마	1	1	0	0	1

자료 : 치료감호소 입출소계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다.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시설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실적 기관별 현황(15개 기관)

구분 시·도	병원명	지정 병상수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5개 의료기관	308	405	354	284	231	81
서울	국립서울병원	2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4	5	4	5	3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2	9	3	2	4
	용인정신병원	10	13	10	8	11	6
	계요병원	10	8	21	7	3	4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1	
대구	대구의료원	2					1
울산	큰빛병원	12	3	3		1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2	3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충북	청주의료원	2					
충남	국립공주병원	10					2
경북	포항의료원	3					
경남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	200	373	303	262	208	61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 4개 의료기관인 부산광역시 의료원(부산, 병상수 2), 참다남병원(대전, 병상수 4), 군산의료원(군산, 병상수 1), 연강병원(제주, 병상수 2) : '12. 1월 신규 지정 예정

- 마약류 중독자 치료감호 시설

-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는 마약 등 약물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료·재활 교육 실시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4.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발생 현황

## 가. 개 요

- 마약류 투약 등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의 살인, 강도, 절도, 인질극·난동, 수사관 살해 등 2차 강력범죄는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환각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거나 마약류 구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강도 등 행위를 일삼고, 심지어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려는 수사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범죄수법이 흉포화 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손실 및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나. 마약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 ▶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유형별 연도별	살인		과다투약 사망, 자살		강·절도		인질극, 난동		수사관보복 살해·상해		기타		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07	0	0	0	0	0	0	0	0	0	0	1	1	1	1
2008	0	0	0	0	0	0	0	0	0	0	1	1	1	1
2009	0	0	0	0	0	0	0	0	0	0	1	1	1	1
20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1	1	0	0	0	0	1	1	1	1	4	4	7	7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다. 대표적 사례

## ▶ 살인 사건

- 2001. 8. 9. 04:00경 서산시 부석면 소재 야산에서 이○○(남 30세, 무직), 박○○(남 28세, 무직), 노○○(남 28세, 무직)은 공동으로 피해자 최○○가 자신들의 대마흡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곡괭이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서산지청)
- 2001. 9. 2. 09:10경 서산시 석림동 소재 주택에서 최○○(남 38세, 무직)는 평소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던 내연의 처 박○○을 칼로 찔러 살해(서산지청)
- 2001. 3. 26. 10:30경 서울 중구 소재 식품점에서 러미나 중독 증세를 보이던 서○○(남 23세, 공익근무요원)은 러미나 판매상인 피해자 전○○과 러미나 매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살해(서울지검)
- 2002. 1. 16. 05: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60의 26 소재 미도○여관 601호실에서 러미나 중독자인 김○○(남 40세, 무직)이 윤락녀인 피해자 김○○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다량의 러미나를 복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서울지검 동부지청)
- 2004. 11. 18. 19:30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소재 프○○호텔 807호실에서 피해자 양○○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20:00경 위 양○○와 필로폰 24g에 대한 흥정을 하면서 가격문제로 다투던 중 소유 불상의 잭나이프를 집어 들고 위 양○○의 배, 가슴 등을 찔러 살해(부산지검)
- 2005. 6. 19. 11:1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아파트 피의자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투여한 직후,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따라오는 듯한 환각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그들을 먼저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식칼 1자루와 과도 1자루를 꺼낸 다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내려가던 중 16층, 10층 등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공○○, 김○○의 어깨 겨드랑이 등을 식도와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23:30경 노원구 중계동 소재 ○○아파트에 정차된 개인택시를 절취하고, 다음날 00:55경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벽돌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서울북부지검)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2006. 1. 5. 23:00경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경주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주차한 피의자의 승용차 내에서 동거녀 피해자 장○○이 피의자의 선배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동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1시간가량 때리고 짓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서울중앙지검)

#### ▶ 자살·과다투약 사망 사건

- 2001. 8. 30. 19: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북문장여관에서 박○○(남 37세, 무직)가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2001. 3. 31. 20:00경 대구시 수성구 소재 자택에서 이○○(남 51세, 무직)가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2002. 1. 5. 01: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모텔에 투숙 중이던 정○○(남 36세, 무직)이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모텔 승강장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소동을 벌이다가 과다출혈로 사망 (부산지검)

#### ▶ 강·절도 사건

- 2001. 5. 27. 황○○(남 27세, 무직), 전○○(남 28세, 무직)는 공동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전남대학병원에서 마약인 모르핀 10앰플, 펜타닐 30앰플, 폐치딘 10앰플을 절취하고, 2002. 2. 2. 황○○(남 27세, 무직), 손○○(남 28세, 무직)은 공동하여 마산의료원에서 모르핀 108앰플, 펜타닐 19앰플, 폐치딘 50앰플을 절취하여 투약 (대구지검)
- 2001. 7.~12.경 사이 안산시 고잔동 소재 한도병원에서 조○○(여 28세, 간호사)은 의사의 마약처방전을 위조하여 병원약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마약인 염산폐치딘 300앰플을 빼내어 투약 (수원지검)

#### ▶ 인질극·난동 사건

- 2001. 3. 5. 08:30경 부산 영도구 소재 자택에서 김○○(남 34세, 노동)은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처와 딸을 식칼로 위협하여 옷을 벗기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처와 딸을 인질로 삼아 경찰관과 1시간가량 대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 (부산지검)
- 2001. 4. 10. 18:3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영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박○○(남 30세, 무직)과 황○○(남 2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수사차량을 피의자들의 운전차량으로 들이받고 이어 황○○는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 (울산지검)
  - 2001. 6. 20. 01:00경 군산시 소재 자택에서 문○○(남 51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동인을 검거하려던 수사관에게 사제권총을 발사하는 등 1시간 동안 난동 (군산지청)
  - 2001. 9. 21.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대명장여관에서 배○○(남 40세, 무직)이 필로폰을 과다 투약한 환각상태로 여관 3층 창문에 매달려 1시간 30분 동안 자살 소동 (남부지청)
  - 2002. 1. 16. 04:50경 대전 중구 소재 여관에서 이○○(남 35세, 여관경영)가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처제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한 뒤 처와 처제, 딸 등을 인질로 삼고 경찰관 20여명과 2시간여 대치하며 난동 (대전지검)
  - 2002. 1. 23. 19:00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동생과 함께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자수한 피의자 김○○(남 29세, 무직)이 투약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자신의 동생과 면담 도중, 형사과 사무실 책상 위에 폭력사건 증거물로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기도 왼쪽부분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 (인천지검)
  - 2002. 3. 29. 07:10경 피의자 김○(남 29세, 운전기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박○○(남 51세) 운전의 개인택시에 승차,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대구 시내 일원을 운전하도록 하다가 검사를 만나야겠다고 대구지점으로 갈 것을 요구, 같은 날 08:30경 대구지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인질로 잡고 마약전담 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난동 (대구지검)
  - 2002. 1. 5. 13:20경 필로폰 중독자 안○○(남 36세, 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백화점 1층 화장품 직원 김○○를 죽여 버리겠다고 흥기로 위협, 5분간 인질극을 벌이는 등 난동 (서울지검 서부지청)
  - 2006. 11. 15. 11:55경 대구시 동구 신기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남, 50세)가 대구지검에 전화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수를 표명하고, 그 후 환각상태에서 과도로 배를 자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해하고, 인근 아파트 1층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할머니를 위협하고 1시간 동안 인질극 소동 (대구지검)

#### ▶ 수사관 보복 살해·상해 사건

- 1997. 9. 22. 10:40경 필로폰 밀매자 박○○(남 37세, 무직)가 동인을 검거하려던 검찰 수사관을 몽둥이로 가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함 (인천지검)
- 1998. 1. 경 대마 밀매자 황○○(남 43세, 무직)이 동인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살해 (춘천지검)
- 1998. 4. 13. 17:00경 필로폰 밀매자 윤○○(남 40세, 무직)가 동인을 검거하려던 검찰 수사관을 칼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함 (부산지검)
- 1998. 10. 15. 01:30경 필로폰 밀매자 정○○(남 35세, 무직)외 2명이 동인들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 등 3명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전치 2~12주의 중상을 가함 (의정부지청)
- 1999. 1. 20. 경 진주지역 필로폰 밀매조직 김○○(남 30세, 무직), 문○○(남 30세, 무직), 천○○(남 29세, 무직) 등이 동인들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200바늘을 봉합하는 중상을 가함 (진주지청)
- 2004. 3. 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조직원 이○○ 동인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에게 생선회 칼을 휘둘러 무릎에 3주 상해를 가함 (서울지검)
- 2006. 8. 29. 05:00경 필로폰 밀매자 김○○(남 36세, 무직)가 동인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을 등산용 칼로 양팔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찔러 양측 주관절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함 (성남지청)

#### ▶ 기타(특수강간 등) 사건

- 2003. 1. 28. 필로폰 밀매자 윤○○(남 42세, 사채업)가 김○○과 필로폰을 0.05g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우○○(여 37세)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김○○과 성교토록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김○○와 투약 및 성교토록 함

## 제3절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 2004. 11.경 대구 S자동차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변○○(46세), 유○○는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 (고도의 정신집중이 요구되는 시내버스 운전수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경우 환각으로 대형 참사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 사건 적발을 계기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종 업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 제고)
- 환각상태에서의 야간·공동상해 및 야간·공동손괴
 

2004. 7. 31. 송○○(남 37세)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환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그랜저 승용차의 후사경을 부수고 위 차량 후드 위로 올라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 프론티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각목으로 때려 부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을 차량 경보음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온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위 봉고차량 안에서 나와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동인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하였음
-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에서 흥기로 내연녀 등 상해 사건
 

2005. 6. 통영시 광도면 소재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 중 동인이 피의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찾아가 아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딸의 얼굴을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
-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에서의 내연녀 상해 사건
 

2006. 7. 24. 피의자 심○○(남 25세)는 진주시 소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내연녀였던 피해자 김○○을 승용차에 태우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다시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샤워꼭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음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피의자의 구타로 상해를 입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 라는 등 협박함
-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에서의 살인미수 사건
 

2006. 9. 7.경 피의자 박○○(남 41세)은 피의자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

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동거녀인 피해자 서○○(27세)에게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떠도는 포르노 동영상이 있는데 네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네가 아니냐, 바른 대로 말하라’고 하였으나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가 대답을 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자상 등을 가하고,

2007. 6. 2.경 여수시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전처인 피해자 서○○(34세)과 함께 여수경찰서에서 오동도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뒤편으로 불상의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온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누군가와 싸고 자신을 죽일 것 같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약 1시간 동안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귀, 이마, 양쪽 무릎, 손목, 발목 등 전신 23곳을 베어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쓰러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미수에 그침 (순천지청)

- 2008. 3. 30.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소재 장흥유원지 앞 도로에서 피의자 우○○(남 38세)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지○○(여 20세)을 위 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커터 칼로 위협하면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고 강제 추행함 (의정부지검)
-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에서의 애인 상해 사건

2009. 10. 23. 23:00부터 10. 25. 08:00경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모텔에서 애인 사이인 피의자 하○○(남 37세)과 황○○(여 30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하○○는 과도로 황○○을 위협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여 위 황○○가 이를 피해 알몸 상태로 모텔 복도를 도망 다니다가 종업원을 도움으로 이불로 몸을 가린 채 택시타고 집으로 귀가함

## 제4절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 1. 개 황

#### 가. 자수기간

- 2011. 4. 1. ~ 2011. 6. 30. (3개월)

#### 나.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sup>14)</sup>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다.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라. 처리

- 단순 투약자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주변 환경 및 의사의 소견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 청구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가족 및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

14)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 자수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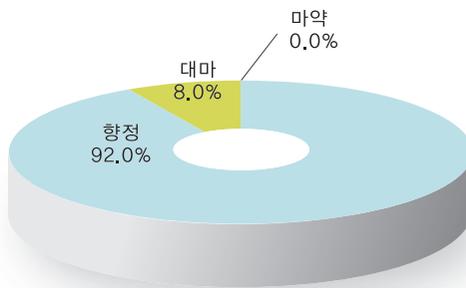
## 가. 마약류별 자수실적

- 전체 자수자 가운데 향정사범이 69명으로 전체의 92.0% 차지

[표 3-79] 자수실적 마약류별 현황

(단위: 명)

마약류	구분	합계			기소유예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건수	인원	구성비			
합계		75	75	100	14	15	7
마약		0	0	0.0	0	0	0
향정		69	69	92.0	13	14	7
대마		6	6	8.0	1	1	0



[그림 3-42] 자수실적 마약류별 구성비

- 2011년도 자수실적은 75명으로 전년도 97명 대비 22.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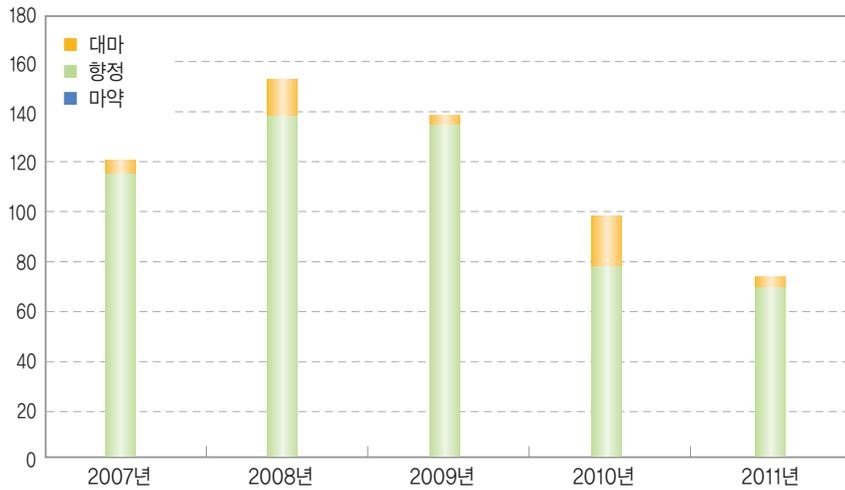
제4절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표 3-80]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122 (100)	154 (100)	139 (100)	97 (100)	75 (100)
마 약	0 (0.0)	0 (0.0)	0 (0.0)	0 (0.0)	0 (0.0)
향 정	116 (95.1)	140 (90.9)	135 (97.1)	78 (80.4)	69 (92.0)
대 마	6 (4.9)	14 (9.1)	4 (2.9)	19 (19.6)	6 (8.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그림 3-43]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2011 마약류 범죄백서

나. 자수자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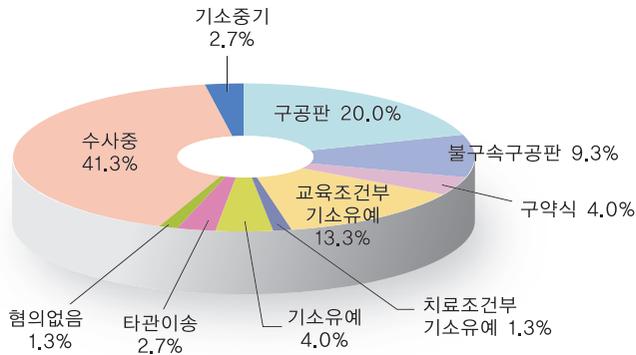
[표 3-81] 자수자 처리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분 합계	처리현황									
		불입건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소년부 이송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타관 이송	미제
2007	122 (100)	2 (1.6)	17 (13.9)	5 (4.1)	36 (29.5)	0	0	0	0	8 (6.6)	34 (27.9)
2008	154 (100)	1 (0.6)	36 (23.4)	9 (5.8)	58 (37.7)	0	0	1 (0.6)	0	13 (8.4)	36 (23.4)
2009	139 (100)	3 (2.2)	39 (33.8)	6 (4.3)	40 (28.8)	0	0	2 (2.2)	0	6 (4.3)	34 (24.5)
2010	97 (100)	0 (0.0)	30 (31.0)	5 (5.2)	24 (24.7)	0 (0.0)	0 (0.0)	2 (2.1)	0 (0.0)	9 (9.3)	27 (27.8)
2011	75 (100)	0 (0.0)	22 (29.3)	3 (4.0)	14 (18.6)	2 (2.7)	0 (0.0)	1 (1.3)	0 (0.0)	2 (2.7)	31 (41.3)

※ 기준일 : 연도별 특별자수기간 종료 직후

- 2011년도 자수자 75명 중 구공판 22명(29.3%)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수자가 관용처리 되었음
- 구공판 처리된 자수자 22명은 상습중독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한 자, 누범기간 중 재범자 등 죄질이 중한 자들이 대부분임



[그림 3-44] 자수자 처리현황

제4절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 2011년도 행정사범 총 자수자 69명 중 1명은 치료보호 의뢰하고 기소유예 처분
- 자수자의 44.0%인 33명이 검찰, 56.0%인 42명이 경찰에 각 자수

[표 3-82] 자수실적 기관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검찰		경찰		합계
	소계	구성비(%)	소계	구성비(%)	
자수자	33	44.0	42	56.0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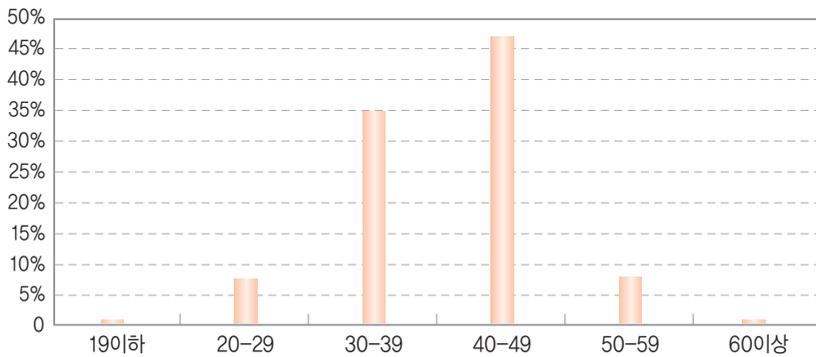
다. 연령별 현황

- 전체 자수자 중 40대 35명(46.7%), 30대 26명(34.6%) 순임

[표 3-83] 자수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분	10-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합계
합계	1 (1.3)	6 (8.0)	26 (34.6)	35 (46.7)	6 (8.0)	1 (1.3)	75 (100)



[그림 3-45] 자수자 연령별 구성비

2011 마약류 범죄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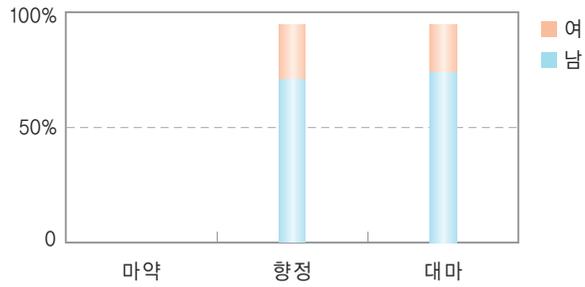
라. 성별 현황

- 전체 자수자의 성별 현황은 남성 60명(80.0%), 여성 15명(20.0%)으로 남성이 다수를 차지

[표 3-84] 자수자 성별 현황

(단위: 명)

마약류 성 별	마 약		향 정		대 마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사범수 (%)	0 (0.0)	0 (0.0)	55 (79.7)	14 (20.3)	5 (83.3)	1 (16.7)	60 (80.0)	15 (20.0)



[그림 3-46] 자수자 성별 구성비

제4절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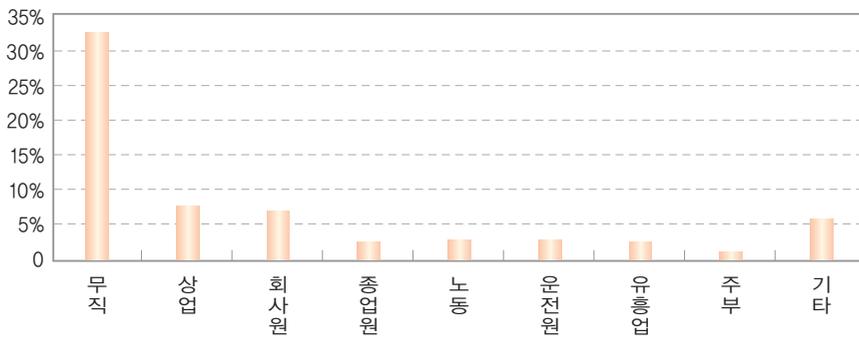
마. 직업별 현황

- 직업별로는 무직 34명(45.3%), 자영업 9명(12.0%), 회사원 8명(10.7%), 종업원 4명, 노동 4명, 운전원 4명(5.3%) 순임

[표 3-85] 자수자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직업별	무직	자영업	상업	회사원	종업원	노동	유흥업	유통업	기타	합계
사범수 (%)	34 (45.3)	9 (12.0)	8 (10.7)	4 (5.3)	4 (5.3)	4 (5.3)	3 (4.0)	2 (2.7)	7 (9.3)	75 (100)



[그림 3-47] 자수자 직업별 구성비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3. 분석 및 향후 계획

#### 가.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치료·재활 정책의 내실화

- 기존 1개월간 실시되던 마약류 투약자 대상 특별자수기간을 2001년도 이후 3개월간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자의 적극적인 자수유도를 통한 치료·재활정책의 내실화를 도모
- 언론사·관공서 등 유관기관 및 인터넷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 단순 투약자로 치료·재활 의지가 분명한 자수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수기간의 취지에 따라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치료·재활 기회 적극 부여하여 전체 자수자의 18.6%인 14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또는 교육이수·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의 관용처분

#### 나. 마약 폐해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및 치료·재활 정책 지속적 추진

- 지속적인 마약 폐해 홍보 정책 추진을 통해 예방 효과 극대화
- 매년 30%선을 상회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를 대상으로 연중 적극적인 치료·재활 정책 추진 및 홍보
  - 단순 투약자로 사안이 경미하여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의뢰
    - ※ 특별자수기간(4~6월) 사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 총 10명
  - 마약류 환자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국립부곡병원(부설 약물중독진료소) 등 권역별 치료보호 기관(15개 의료기관)을 관할 검찰청과 연계하여 적극 활용

## 제4절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처벌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전문적 치료·재활프로그램 마련
  - 치료보호되는 단순 투약자와 달리 치료·재활 과정 없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대다수 마약류 투약사범을 위한 치료·재활 정책 필요
  - 개인별 중독성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 병행 실시 필요

## 제5절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 1. 개 황

#### 가. 단속기간

- 양귀비 : 2011. 4. 중순 ~ 6. 하순(개화기)
- 대 마 : 2011. 6. 중순 ~ 7. 중순(수확기)

#### 나. 단속방법

- 각청 마약전담검사 지휘 하에 마약수사반 직원, 시·군·구 유관기관 공무원 및 사법경찰관 리 등과 합동으로 단속 실시
-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양귀비·대마 다량 사용자, 대마 재배 허가 및 대마 도난신고 사실 등 사전 확인 후 단속
- 밀경작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탐문수사 등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답사 등 효과적인 단속활동 전개
- 특히, 서해안 및 남해안 지역을 관할하는 청에서는 취약지역인 도서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 수립 실시

#### 다. 단속대상

-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기타 관련사범

## 제5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2. 단속실적

## 가. 단속인원

- 총 1,209명 단속(전년대비 15.8% 증가)
  - 양귀비사범(13.2% 증가), 대마사범(29.2% 증가)
- 단속현황

[표 3-86]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현황

(단위: 명)

사범별	구분	계		구속		불구속		불입건	
		명	(%)	명	(%)	명	(%)	명	(%)
계		1,209	(100%)	34	(2.8)	765	(63.3)	410	(33.9)
양귀비		992	(100%)	2	(0.2)	580	(58.5)	410	(41.3)
대마		217	(100%)	32	(14.7)	185	(85.3)	0	(0.0)

## 나. 단속실적 추이

[표 3-87]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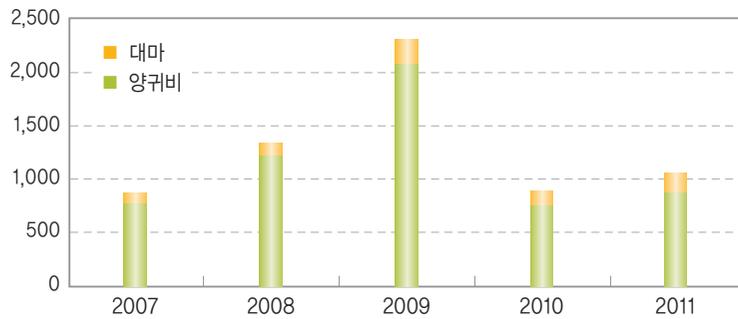
(단위: 명)

사범별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명	명	명	명	명
양귀비	인원	945	1,392	2,268	876	992
	증감률	(-5.4%)	(+47.3%)	(+62.9%)	(-61.4%)	(+13.2%)
대마	인원	86	128	223	168	217
	증감률	(-44.5%)	(+48.8%)	(+74.2%)	(-24.7%)	(+29.2%)
계	인원	1,031	1,520	2,491	1,044	1,209
	증감률	(-10.7%)	(+47.4)	(+63.9%)	(-58.1%)	(+15.8%)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유형별 단속실적으로 양귀비 밀경작사범은 928명으로 전년(871명)대비 6.5% 증가하였고, 대마 밀경작사범은 49명으로 전년(35명)대비 40.0% 증가
- 밀경작 규모별로 양귀비 100주 초과 밀경작사범은 152명으로 전년(147명)대비 3.4% 증가하였고, 대마 100주 초과 밀경작사범은 11명으로 전년(8명)대비 37.5% 증가



[그림 3-48] 연도별 단속현황

## 다. 압수물 현황

[표 3-88]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압수물 현황

종류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양귀비 (주)	44,513	68,077	146,933	90,758	97,517
대 마 (주)	5,188	3,848	39,724	12,657	72,109
대마초 (g)	363	11,522.1	1,830	1,871	694
대마종자(g)	0	4,530	113,010	23	93,568

- 2011년도 양귀비(주) 압수량은 전년대비 7.4% 증가
- 2011년도 대마(주) 압수량은 전년대비 469.7% 감소, 대마초 압수량은 전년대비 62.9% 감소

### 3. 향후대책

#### 가. 효율적인 양귀비·대마재배 사범 단속 운영

-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의 경우 대부분 50주 이하의 소규모에 지나지 않고, 특히 대부분은 고령층 주민들로 60세 이상이 82.9%를 차지하고, 가정상비약 및 관상용이나 가족의 질병치료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경작하고 있어 그 처벌 가치가 크지 않음
  - 양귀비·대마 총 단속인원 1,209명 중 관용처리(불입건, 기소유예) 인원은 937명으로 77.5% 차지
- 아편·대마의 밀거래 및 사용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양귀비·대마의 재배 사범에 대하여는 그 단속기준·운영 등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 검토 필요

#### 나. 주민 자진신고 적극 유도

- 1301 신고전화 홍보 및 운영강화
- 대규모 밀경작사범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으로 주민 자진신고 유도

#### 다.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 전개

-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양귀비·대마 파종기,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를 전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계몽활동 강화하여 단속보다는 양귀비·대마 재배 불법성 홍보 정책 추진
-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마 절취 우려 및 도난 방지 대책 없는 도로변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의 대마 재배에 대해서는 재배 허가를 제한토록 유도하는 등 재배농가의 경각심 고취토록 조치
- 기소유예 및 불입건자들에 대한 계몽차원에서 양귀비·대마 재배의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계도 및 철저한 사후관리

## 제6절 청소년 마약류 사범 실태 및 분석

### 1. 분석 대상

- 최근 2년간(2010.1.~2011.12.) 처분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중 19세 이하 미성년자 피의자 66명에 대한 분석
  - 무혐의 및 공소권없음, 타관이송 등 처분사건 제외(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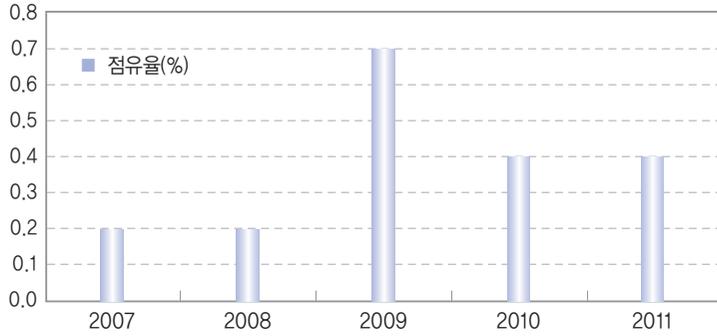
### 2. 현황

#### 가. 연도별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리 현황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19세 이하 (점유율 %)	19 (0.2)	23 (0.2)	82 (0.7)	35 (0.4)	41 (0.4)

- 최근 5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

제6절 청소년 마약류 사범 실태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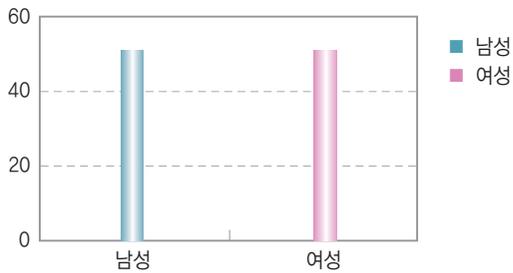


[그림 3-49]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리 현황

나. 성별 현황

구분 \ 성별	남	여	합 계
19세 이하 (점유율 %)	33(50.0)	33(50.0)	66(100)

- 2011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여성 점유율은 15.2%, 상대적으로 19세 미만 마약류 사범의 여성 점유율은 매우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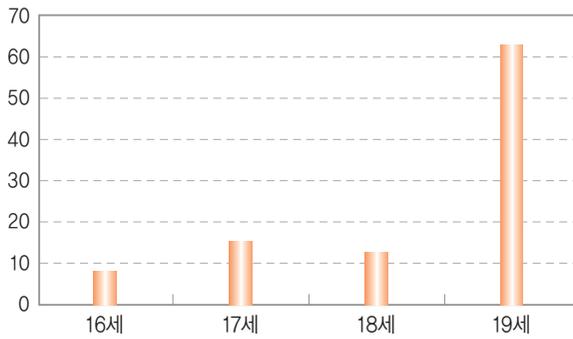
[그림 3-50] 청소년 마약류 사범 성별 현황

2011 마약류 범죄백서

다. 연령별 현황

구분 \ 연령별	16세	17세	18세	19세	합계
19세 이하 (점유율 %)	6 (9.1)	11 (16.7)	8 (12.1)	6 (62.1)	66 (100)

- 15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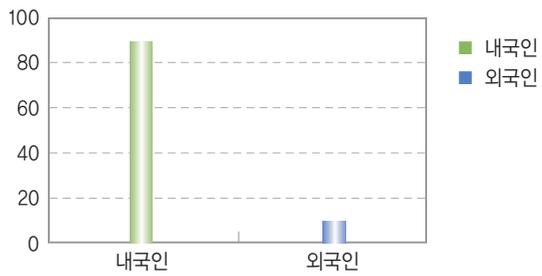
[그림 3-51] 청소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

## 제6절 청소년 마약류 사범 실태 및 분석

## 라. 국적별 현황

구분 \ 국적	내국인	외국인	합 계
19세 이하 (점유율 %)	59(89.4)	7(10.6)	66(100)

-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은 각 미국 4명, 태국 2명, 영국 1명
- 2011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외국인 점유율은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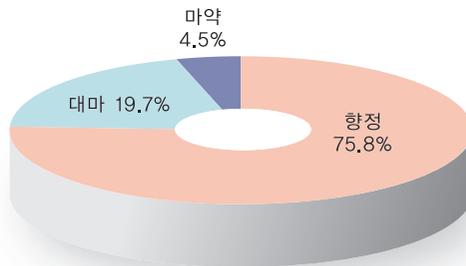
[그림 3-52] 청소년 마약류 사범 국적별 현황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마. 마약류별 현황

구분 \ 마약류	마약	대마	향정	합계
19세 이하 (점유율 %)	3 (4.5)	13 (19.7)	50 (75.8)	66 (100)

- 마약 : 양귀비 3명
- 대마 : 대마초 11명, 해시시 2명
- 향정 : 펜터민 등 비만치료제 12명, 졸피뎀 등 수면제 12명, 필로폰 12명, JWH-018 9명, 야바, 프로포플 각 2명, GHB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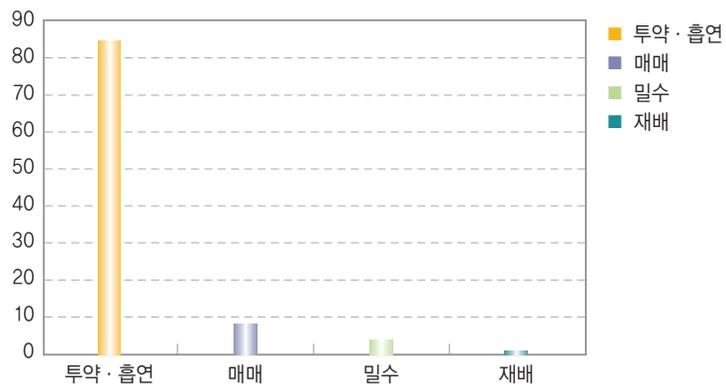
[그림 3-53] 청소년 마약류 사범 마약류별 현황

## 제6절 청소년 마약류 사범 실태 및 분석

## 바. 범죄 유형별 현황

구분 \ 유형	투약·흡연	매매	밀수	재배	합계
19세 이하 (점유율 %)	56 (84.8)	6 (9.1)	3 (4.5)	1 (1.5)	66 (100)

- 2011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투약사범 점유율은 58.5%,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투약사범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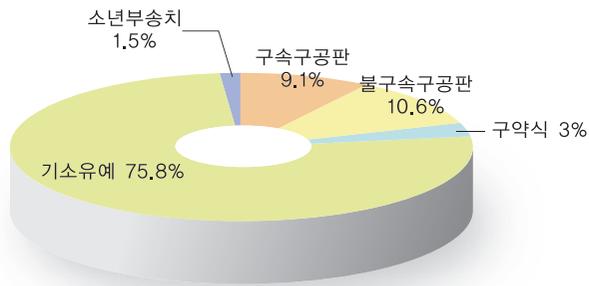
[그림 3-54] 청소년 마약류 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2011 마약류 범죄백서

사. 검찰처분 현황

구분	기소			불기소		합계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소년부송치	
19세 이하 (점유율 %)	6 (9.1)	7 (10.6)	2 (3.0)	50 (75.8)	1 (1.5)	66 (100)

- 2011년 마약류 사범 전체 처분인원중 기소유예처분 점유율은 12.9%
- 기소유예 처분에 치료조건부 1명, 교육조건부 7명 포함



[그림 3-55] 청소년 마약류 사범 검찰처분 현황

제6절 청소년 마약류 사범 실태 및 분석

아. 범행 동기별 현황

구분 \ 유형	유혹	호기심	권유	영리	수면	다이어트	기타	합계
19세 이하 (점유율 %)	20 (30.3)	14 (21.2)	6 (9.1)	2 (3.0)	12 (18.2)	11 (16.7)	1 (1.5)	66 (100)

- 마약류 접촉 경로는 인터넷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그 외 친구, 선후배 등을 통해 접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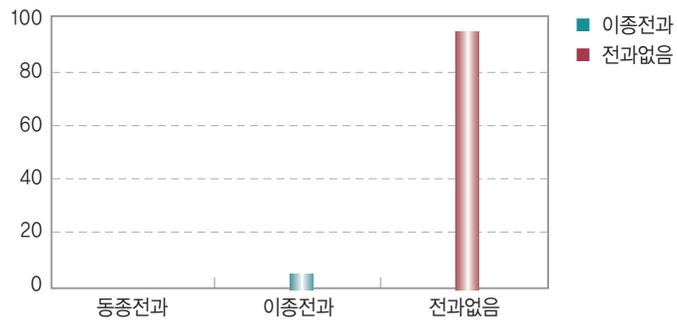
[그림 3-56] 청소년 마약류 사범 범행 동기별 현황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자. 범죄전력 현황

구분 \ 전과	동종전과	이종전과	전과없음	합계
19세 이하 (점유율 %)	0 (0.0)	4 (6.1)	62 (93.9)	66 (100)

-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0%, 유해화학물질 흡입 전력자 또한 없음
- 2011년 전체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37%, 매년 30% 이상의 재범률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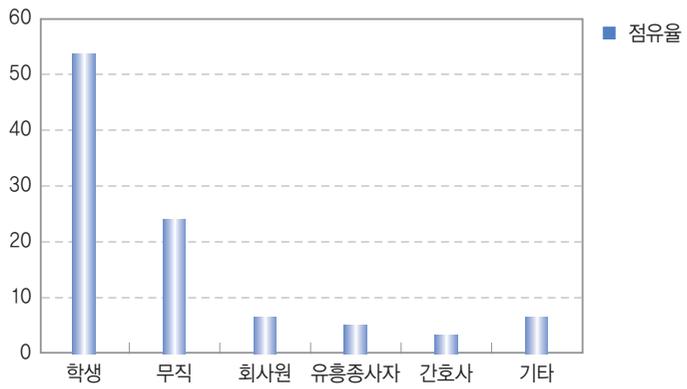
[그림 3-57] 청소년 마약류 사범 범죄전력 현황

제6절 청소년 마약류 사범 실태 및 분석

차. 직업별 현황

구분 \ 직업	학생	무직	회사원	유형 종사자	간호사	기타	합계
19세 이하 (점유율 %)	35 (53.0)	16 (24.2)	5 (7.6)	4 (6.1)	2 (3.0)	4 (6.1)	66 (100)

- 연령 특성상 학생 점유율이 가장 높음



[그림 3-58] 청소년 마약류 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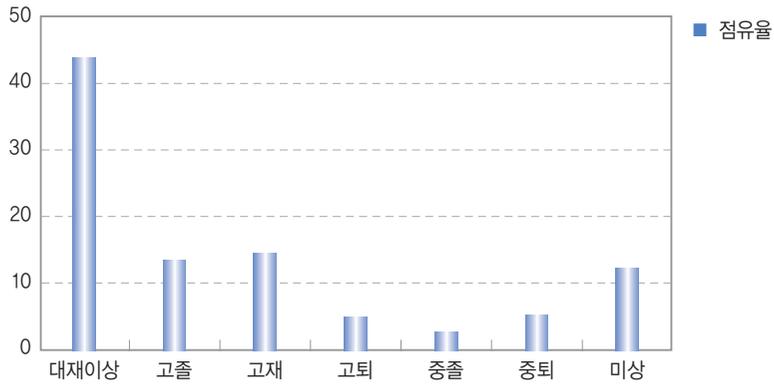
제3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2011 마약류 범죄백서

카. 학력별 현황

구분 \ 유형	대재 이상	고졸	고재	고퇴	중졸	중퇴	미상	합계
19세 이하 (점유율 %)	29 (43.9)	9 (13.6)	10 (15.2)	4 (6.1)	2 (3.0)	4 (6.1)	8 (12.1)	66 (100)

- 전체 마약류 사범의 학력별 점유율과 큰 차이 없음
- 해외 유학생은 6명으로 9.1%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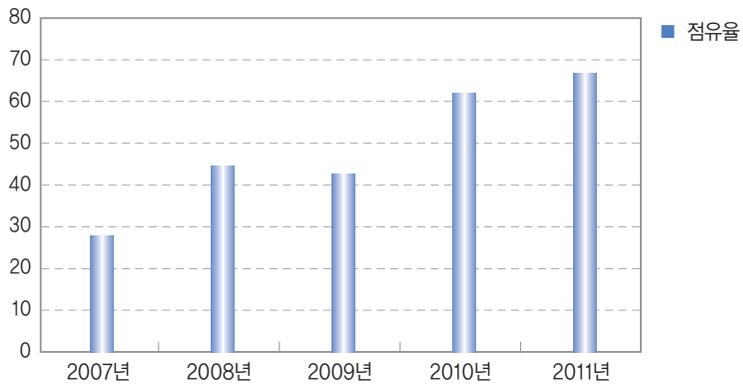
[그림 3-59] 청소년 마약류 사범 학력별 현황

## 제6절 청소년 마약류 사범 실태 및 분석

## 3. 유해화학물질 흡입사범 현황

구분 \ 유형	투약 · 흡연	매매	밀수	재배	합계
전체 인원	800	927	1,081	1,367	1,761
19세 이하 (점유율)	228 (28.5)	416 (44.9)	465 (43.0)	848 (62.0)	1,188 (67.5)

- 전체 유해화학물질 흡입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10년 이후 50%를 넘어섬
- 19세 이하 유해화학물질 흡입사범은 2010년 848명에서 2011년 1,188명으로 전년 대비 40.1% 증가, 2007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여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음



[그림 3-60] 유해화학물질 흡입사범 현황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4. 분석결과

## 가. 19세 이하 청소년층의 마약류 범죄현황은 심각하지 않은 상태임

-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이고, 대부분이 투약사범이며, 비만치료제 및 수면제 복용이 상당수를 차지함
- 15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적발 사례 없음
- 청소년층은 마약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한 환각물질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임

## 나.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상당수가 인터넷을 통해 처음 마약류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유학생을 통해 마약류를 처음 접하거나 귀국하면서 마약류를 가져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통해 청소년층에 마약류가 확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75.8%인 50명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이 중 16.0%인 8명에 대해서만 치료재활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남

- 기소유예자의 50% 이상이 학생신분으로 입원치료 내지 입소교육을 받기 곤란하여 치료재활제도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짐

## 라.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청소년층 유해화학물질 흡입사범이 향후 마약류 사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음

- 유해화학물질 흡입사범이 마약류 사범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마약류 사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5. 향후대책

### 가. 마약류 및 환각물질 폐해의 심각성 인식 제고

- 교과부, 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교육, 홍보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 전개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나. 청소년 대상 마약류 공급사범 엄단

- 청소년 출입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된 단속 필요
-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하여는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단

### 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 차단

- 인터넷 중고장터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수면제 등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
-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 철저 단속, 필요시 사이버 범죄수사단과 연계

### 라. 치료재활제도 적극 활용을 통한 재범 방지

- 수감생활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악순환 방지
- 청소년층에서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흡입사범 또한 잠재적 마약류 사범으로 분류, 적극적인 치료재활제도 적용

